EAST ASIAN LIBRARY OCT 20 1982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56 1982년 10월 18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Monday, October 18,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상공협회」 난산

「실협」서 강력 저지작전 폐

가칭 「한인상공인협회」가 탄생도 전에 질식사 할 번했다.

16일 하오8시(토) 트라이엄프·쉐라톤·호텔에서 발기총회를 가지려던 상공인협회는 또하나의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의 강경한 반발을 받아 14일밤 "상공협회는 실협 기치 아래서 실협과 공동관심사를 서로 협의, 단결해 간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6개월전부터 김완수(선·프린팅), 조병역(쿠진스·레스토랑), 정창헌(미시사가 오토바디)씨등이 중심이 되어 조용히 발기준비를 해온 상공협회는 발기인으로 실협회원이 아닌 교포 실업인 50명을 모았다.

친목과 경영합리화의 공동모색등을 목적으로 내건 상공협회 발기인은 외환은행, 조흥은행, 신문사, 보석상, 자동차정비업, 선물센터등 15개 업종 경영자로 구성됐으며 김완수씨가 발기위원장이었다.

상공협회 창립을 전해들은 차선겸 실협회장등 간부진은 3주전 발기주동자들을 만나 "새 단체 창립보다는 실협 아래 단결, 한덩어리가 되자"고 호소했으나 여의치 않자 14일 상오 음식점 한국관에서 긴급이사회를 소집, 협회출범저지 방침을 확정하고 대책위원회(위원장 서준경)까지 구성했다.

실협측은 상공협회 창립 반대 이유를 1)현실적으로 실협정관상 인쇄업, 정비업등 상공인협회에 가입하는 업체들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는 점, 2)상공인협회가 추구하는 목적이 친목뿐 아니라 이곳의 생산업자들과 접촉, 협상을 벌이게 되면 실협의 파우어가 상대적으로 미약해 진다는 점, 3)2년마다 한번씩 뽑는 실협회장선거가 점점 열기를 띄워가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차기선거에서 낙선팀이 회원들을 이끌고 신설단체로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4)오는 22일 실협총회를 거쳐 83년부터 실협내 협동조합을 탄생시키는 시점에서 이같은 단체가 생기면 실협회원들이 협동조합가입을 망설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실협 긴급 이사회는 발기총회가 강행되면 발기인들의 대부분이 교민상대업소인 것을 감안, 실협회원을 중심으로 불매운동까지 벌이는 강경책과 상공협회 사람들을 회유, 실협산하단체로 가입시키자는 온건책을 세웠다.

이 자리에 초청된 박인순 한인회장은 "상공인협회가 교민사회의 분열을 초래하게 되면 좋지 않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해 관계가 얽힌 여러업종들의 단체가 현실적으로 실협같은 회원들의 이익단체가 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장순채 코리아타운 번영회장도 "상공인협회의 탄생을 한마디로 반대한다. 현 실협의 성장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발전하는 단체에 또하나의 유사단체가 생기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상공협회 창립총회를 목전에 둔 14일밤 9시 실협측의 차회장, 김태진이사장, 서대책위원장, 이춘수협동조합 추진위원장은 미시사가 모 중국점에서 상공협회 발기인 김, 조, 정씨를 만나 김현모 한인연합상사(도매상) 사장 중재로 새벽 1시까지 협상, 실협 기치아래 일단 단결하는 방침에 합의하고 세부사항은 추후 결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김 발기위원장은 15일 "세부적인 문제는 발기인 총회서 결정될 것이다. 그이상 할 말이 없다"고 간단히 말했다.

발기인으로 들어있는 교포 비지네스맨 C씨는 "상공협회가 생길 필요성이 있다. 상공협회는 실협과 마찰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면서 실협의 반응을 "과민반응"이라고 지적했다.

우대금리 13.75%

14일 캐나다중앙은행이 각 금융기관에 주는 이자율을 11.62%로 내리자 각 시중은행은 우대금리를 13.75%로 내렸다.

지난주의 우대금리(Prime Rate)는 14.50%였다.

금년초에만 해도 18%를 오르내리던 모기지 이자율은 1년만기형의 경우 최저 14.25%까지 떨어졌다.

보통예금 이자율은 지난주 10%에서 9.25%로 떨어졌다.

중공·브라질등, 새섬유 수출국

한국등 기존 수출국 위협

최근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가 조사발표한 바에 따르면 세계 섬유의류교역에서 새로 부상한 섬유류 수출국들은 선진국은 물론 한국, 홍콩, 자유중국등 기존섬유류수출의 수출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무역위원회의 조사자료에는 이 새로운 섬유류수출국으로 중공, 브라질, 콜럼비아, 인도, 마카오, 말레이시아, 멕시코,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등을 들고 있다.

이 국가들의 73~80년 기간중 섬유의류 수출은 무려 2 23%의 신장세를 보여 한국, 홍콩, 자유중국의 신장률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한편 이 기간중 유럽과 일본의 미국섬유의류시장 점유율은 36%에서 19%로 하락했으나 한국, 홍콩, 자유중국은 29%에서 46%로 성장했고, 신생섬유수출국은 18.7%에서 23%로 각각 증가했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8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14일 자정께 일어난 다이너마이트 폭발 사건으로 이토비콕의 리톤·시스템즈회사의 건물 한쪽 벽이 다 달아났다.

미사일공장 폭발 7명 부상

이토비콕, 비핵데모 자주 일던곳

14일밤 자정직전 이토비콕에 위치한 미사일부품회사 리톤에서 폭탄이 터져 경찰관 3명을 포함, 최소한 7명이 부상을 당하고 공장건물 일부가 대파됐다.

이 공장에는 한국인 종업원도 10명 있다.

하이웨이427과 딕슨·로드부근의 시티·뷰우·드라이브에 있는 렉스데일·리톤·시스텀스공장에 주차시켜놓은 벤추러속에 장치해놓은 폭탄이 터지면서 벤추러과 옆에 세워둔 경찰순찰차가 파편에 대파되고 3개건물중 1개가 벽이 날라가 버렸다.

리톤·시스텀스(Litton Systems)는 미국의 크루스·미사일의 유도장치를 제조하는 공장으로 지난 수년동안 이곳에서 많은 핵무기 반대데모가 벌어져 수십명이 체포됐다.

이 폭탄은 1미터×66센티미터의 오렌지색 상자속에 넣어져 있었으며 상자밖에는 "위험폭발물"이라는 끄리표가 붙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메트로 경찰위원회 멤버인 데니스·프린 에토비코크시장은 이 사고가 난후 발표를 통해 11시20분에 이 공장에 폭탄이 장치되어 있다는 제보를 받았으며 그후 10여분 [illegible] 폭파되었다고 말했다.

부상을 당한 경찰관 3명은 폭발물이 터진 장소에서 15미터 떨어진 곳에서 폭발물 전담요원이 도착되기를 기다리고 있는중 변을 당했으며 이들중 1명은 날라온 파편에 맞아 얼굴을 크게 다쳤다.

부상을 당한 또다른 3명은 공장 직공이며 나머지 1명은 공장경비인 것으로 밝혀졌다.

에토비코크종합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공장직공들이 가장 심한 부상을 당했으며 이중 1명은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 들것에 실려 운반되었다.

폭파직전 경비원이 공장 직공들에게 폭탄위험이 있으니 "급히 도망치라"고 고함을 쳤으며 이 소리를 들은 직공들이 비상출구쪽으로 달리기 시작한 찰라, 폭탄이 터졌다.

이들 3명의 부상당한 직공들은 폭발로 문이 막혀 빠져 나오지 못하고 갇혀 있다가 급거 출두한 소방요원들에 의해 구출되었다.

이 폭발로 1마일이나 떨어진 에그링톤·에비뉴·웨스트와 마르틴그로브·로드에 있는 집들까지 흔들렸다.

◁사 고▷

미녀의 미소 사진 : 이기성 모델 : 박은희

※이 사진은 응모작품이 아니고, 사진협회 이기성 총무가 10월2일 현장에서 찍은 것.

사진촬영대회

출품마감 10월 30일

한인사진협회(회장 전경수)와 본사가 공동주최, 지난 22일 실시한 제7회 사진촬영대회에는 50여명의 의욕적 카메라맨이 참가, 기량을겨루었읍니다.

단풍과 미녀모델을 렌즈에 담은 우수 사진들이 다수 출품될 것이 기대되며, 출품자 들은 아래 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출품마감 : 1982년10월30일
부 문 : 칼라, 흑백, 슬라이드
사진크기 : 8인치×10인치 이상
접 수 처 :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 Tor.
M6H 1Z7 (Tel : 533-2361)

◀금주의 행사▶

10월18일(월)~24일(일)

◆ 15일~22일(금) 문인협회 합동시화전
곳 : Wayside화랑 (886-1667)-9185 Yonge St.(Hwy11)·Borovoy Plaza
◆ 17일(일)~20일(수) 17일은 저녁 7시 18~20일은 새벽6시, 저녁7시30분 창립4주년 부흥성회
곳 : 순복음캐나다교회
◆ 20일(수)~21일(목) 정명훈 토론토심포니 지휘
저녁8시 로이·톰슨·홀(60 Simcoe St.)
◆ 22일(금) 하오6시 실업인협회 정기총회
곳 : Inn on the park호텔(에글린톤×레슬리)
◆ 23일(토) 상오9시~하오6시 1일묵상 수양회
강사 : 왕영수신부
곳 : 한맘회관(439 Dundas St. E. Tor.)
◆ 23일(토) 정오 7순맞이 가족예배(강찬영변호사 모친 이덕인여사)
곳 : 토론토한인장로교회(1183 Davenport Rd. Tor.)

오늘의 예금금리

한인신용조합

기 간	일반정기예금	오투기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2%		11.5%
90일	12.5%		11.5%
180일	12.75%	12.75%	12.0%
365일	12.75%	12.75%	12.0%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은하 보석
ROLEX
란 콤 화 장 품 대 리 점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 국 선 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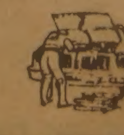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숙녀의 꿈

고상하고 우아한
여성미의 극치!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특별 세일!
『밍크쇼』를
11월중에
실시하오니 부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품목 : 밍크, 라쿤, 여우털
마스카라, 링스,
친칠라, 무스, 비버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B 536-1692 R 245-3539

20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 : 745 : 7400)
*사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 (OVEN BAKED FINISH)
*수리중 차량대여
*각종차량 일체취급
*사고시 전화문의 환영

215 TORYORK DR.
One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d.
☎ (B) 749-0555
(R) 881-4053
송 대 헌

어린이 스케이트및
SKI BOOTS
TRADE-IN

매년마다 여러분 자녀에게 스케이트를 새로사줄 필요가 없읍니다.
성장하는 어린이들의 발 싸이즈는 항상 달라지므로 언제든지 오셔서 다시 바꿀수 있도록 각종 다량의 스케이트를준비했읍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하십시오.
이건영 올림
BRANDON SPORTS
337 Bloor St. W.
(연합교회 건너편)
☎ : 598-3732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다우케미칼, 한국서 철수

미화약제조사, 한국투자측과의 분쟁

한국화약·럭키·대림·효성·선경등 인수

(서울=외신)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체중 가장 규모가 큰「다우케미칼」사가 최근 2년간에 걸친 한국공동투자측과의 분쟁끝에 한국으로부터 철수키로 결정했다고 한국정부관리들이 13일 밝혔다.

미국굴지의 화학약품제조회사인「다우케미칼」은 한국에 세운「다우케미칼코리아」와「코리아패시픽케미칼」(KPCC) 2개기업에 투자한 6천만달러상당의 주식을 5개 한국대기업에 매각키로 했다.

이들 주식을 인수할 5개 한국업체는 한국화약, 럭키, 대림, 효성, 선경그룹으로 알려졌다.

다우케미칼은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해온 외국기업체로 다우케미칼 코리아와 KPCC의 2개 방계회사를 통해 연간 21만톤의 염소와 22만7천톤의 가성소다를 현지생산해왔다.

그중「다우케미칼코리아」는 완전 미국자본으로 설립되었고 KPCC는 50대50으로 다우사와 2천여명의 한국인투자가들 사이에 건립되었다.

그러나 1981년초 다우사가 1백% 투자한 다우케미칼코리아가 세계적인 석유화학제품시장의 경기침체로 2년사이에 1천8백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자 다우사는 한국과 공동투자한 KPCC와 이를 통합, 적자폭을 메우려 두회사의 통합안을 들고 나왔다.

KPCC는 비교적 안정된 수입을 보이고 있었던터라 5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주주들이 통합을 반대, 결국 양측은 이문제를 한국법정으로까지 끌고 갔다.

한국법정이 다우케미칼측의 통합안을 기각해버리자 다우사는 철수를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다우사가 소유하고 있던 6천만달러의 주식중 2천만달러는 새로 인수하게될 한국의 5대기업이 오는 11월15일 현찰로 지불하고 나머지 4천만달러는 런던국제은행이 설정한 이자에 0.75%를 더한 금리로 향후 8년간 다우사에게 지불하기로 했다.

이로써 다우케미칼은 지난 7월 한국에 조립공장을 세운 컴퓨터관계 제조회사인「컨트롤데이타」사가 철수한 이래 2번째로 한국 현지공장에서 손을 뗀 미국굴지회사가 되었다.

▲미스·인터내셔널—미국의 크리스티·엘렌·클레팅지양(가운데)이 1982년도 미스·인터내셔널로 뽑혔다. 43명의 세계각국미녀들이 참가한 미스인터내셔널 선발대회최종결선은 13일 일본 후꾸오까에서 열렸다. 원편은 3위의 미스·오스트리아, 오른편은 2위를 차지한 미스·스페인. (후꾸오까, 일본)

고신부 환송잔치

칵테일및 댄스파티로

토론토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로 교회뿐 아니라 14년간 한인사회를 위해 공적·사적으로 이바지가 컸던 고종옥 신부 환송파티가 오는 30일(토) 하오7시, 토론토 퀸·스트릿·이스트의 한인성당(St. Paul Church, 83 Power St.)강당에서 칵테일및 댄스파티로 열린다. (본보 10월11일자 참조)

신자와 일반교포들 아무나 참가할 수 있으며, 회비는 무료이다.(단, 술은 각자부담)

〈여행사〉

신세계여행사	536-2155
서울여행사	535-6004
제일여행사	535-2377
북미여행사	366-0960
천우여행사	928-3335

정길수 1위

마스터스골프

무나미트로피주최 제2회 마스터스골프대회에서 정길수씨가 그로스1위를 차지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지난 9일 노블톤·레이크골프장에는 약간 쌀쌀한날씨에도 불구 48명의 한인골퍼들이 모였다. 작년도1의 박영철부총영사는 불참했다. 마스터스대회 성적은 다음과 같다.

◉그로스 1. 정길수 2. 최상수 3. 박상남 4. 이준규 5. 이무교

◉넷트 A조 1. 강태영 2. 심재환 3. 김형도 4. 김인환 5. 신성훈

◉넷트 B조 1. 송대헌 2. 원일재 3. 차선행 4. 하청남 5. 김기수

◉Nearest to Hole 5 Hole 강경하 8 Hole 신성훈 11 Hole 조기연 16 Hole 이동환

◉Longest Drive 백경락

◉행운상 나영삼

컴퓨터 이용, 체온 측정

임신 조절기 등장

(재네바)여성의 체온을 측정, 수태기인가 아닌가를 알려주는 새로운 임신조절기가 고안됐다.

오는 1월중 시판될 것으로 보이는 새 기구의 이름은 바이오·셀프.

입안에 넣을 수 있는 체온기와 소형컴퓨터로 된 바이오·셀프는 여성의 체온이 한달에 한번씩인 배란기 전에 낮아졌다가 배란후 높아지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바이오·셀프 고안자는 건축사인 제네바의 에드몬드·메스자크씨. 그는 임신조절을 반대하는 캐톨릭신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가족계획법을 모색해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시험을 허가한 바이오·셀프의 생산은 주로 캐나다의 몬트리얼에서 이루어진다. 1달 생산량은 30,000개 정도.

가격은 $60 정도이며, 체온 측정 2분뒤면 배란기인가 아닌가를 알려주는 파란 불이 켜지도록 돼있다.

한글잡지〈초원〉발행

북미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잡지 〈초원〉이 창간됐다.

「생각하는 인격형성, 실천하는 생활태도, 단결하는 사회구현」을 모토로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시의 한아문화출판사(대표 한만희)가 발행하는 이 잡지는 총 80페이지 국판이다.

「이민가정의 청소년교육문제」를 특집으로 다루어, 3대논설「가정환경의 중요성」(민병갑),「보람있는 젊은 세대」(김동식),「부모들의 실질적인 관심이 중요하다」(이규성)을 실었고 시, 수필, 논문등을 곁들였다. 발행처는 The Korean Cultural Magazine Co., 3229 Caens Hill Pl, N.W. Atlanta, Ga. 30305 U.S.A.

가격은 $4씩이다.

5분간의 落書

식탁의 변

홍기만(문협회원)

◆홍기만 씨

패턴 장군은 2차대전 당시 야전군사령부 휘하장병에게「넥타이」착용 지시를 내린 적이 있다. 언뜻 이해가 안간다.

야전복에 타이를 맨다는 것. 야전복에 타이를 하고 줄을 서서 음식을 배당받아 식탁에 가서 먹는다. 만화같기도 하다. 이런 특이한 점이 패턴 장군의 매력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건 다만 패턴 장군에 국한된 일화는 아니다.

미국 군영내를 가면 영화관도 타이를 착용해야 입장이 허용되는 날이 있다. 복장은 개의치 않는다. 남방샤쓰에라도 타이만 하면 무방하다. 이런「타이 착용일」일수록 우수영화가 개봉되기 일쑤고, 영화관은 통상 만원을 이룬다.

그후 지휘통솔법을 강의하는 미군장교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

타이는 정장을 의미한다. 정장은 신사의 차림이다. 신사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진다. 이는 바로 질서이며, 질서는 군의 규율이다.

군기확립에 기여하는 여러 요소중의 한가지에 식사예법이 있다. 야전식 간이식당에도「타이 착용일」이 있다. 이와 반대로 정찬이 제공되는 정규장교식당은 오히려 이런 제한이 없다. 그러나 이곳에 들른 사람은 누구나 단정한 복장에 예의 바르게 식사를 한다.

우리나라에는 식사를 예의 바르게 하는 일반화된 습성이 없다.

흔히 실례되는 얘기지만 식사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묘한 습성을 지녔다는 생각이 든다. 수저로 밥을 뜨거나 찬을 집으면 입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상체가 숙여지며 입이 음식으로 내려와 덥석 덥치거나, 아니면 쑤셔 넣는다. 연거푸 그런 동작이 있은 다음에야 상체가 바로 서고, 양볼에 그득한 음식을 씹기 시작한다. 재간이라도 부리듯 숟가락과 젓가락을 오른손 다섯 손가락 사이에 함께 끼어 잡기도 한다. 그리고 한손엔 신문이 들려 있다. 한쪽 발은 의자 위에 올려 놓기 일쑤다. 어떤 때는 숫제 신을 벗고 편히 꼬나앉는다. 온돌방이 그리워서인지는 모르겠다. 냅킨은 몇장이 고한없이 쓴다. 코를 풀기도 한다. 이쑤시개는 입에 물고 씹거나 잘금잘금 동강이를 내야 직성이 풀리나보다. 국그릇을 통째로 들어 국물을 주욱 들여마신다. 혁대를 풀고 단추를 두어개 딴다. 물로 입가심을 한다.

이건 한국의 대중식당 얘기가 아니다. 우리의 이야기다. 북미에 산재해 있는 한인음식점의 거개가 이런 실정이다.

우리 이민세대의 교육수준은 최저가 고졸이다. 그런데 근대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적어도 식사예법에 있어서만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민 2세들도 한국음식을 먹는 방법만은 우리 세대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기에 우리나라에는 식사를 예의 바르게 하는 일반화된 습성이 없다는 것이다.

식사는 인간생활의 기본이다. 미국의 어느 유치원에서 올바르고 예의 바르게 식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몸에 익히도록 자상히 거듭 가르친다. 어려서의 습관은 성장하면서 생활습성으로 변하고, 이러한 생활 관리능력은 질서를 낳는다.

우리의 기억을 더듬으면 "동해물과…"부터 시작된다. 조기교육으로 재질을 개발한다고 피아노 치기를 비롯한 여러 예능에 치중한다. 거기에 혀꼬부라진 영어까지 곁들여 가르치는 게 우리의 유치원이다. 성장하면 제각기 일류요, 수재이기에 질서는 무너지기 일쑤다.

어떤 이는 한국음식을 탓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더욱 어리석은 일이다.

1950년대 휴전후의 곰탕이나 1980년대 북미에서 먹는 곰탕은 조금도 다른게 없다. 있다면 화학조미료가 혀끝을 자극하는 것 이외는.

일본음식점으로 눈을 돌려보자. 시선을 사로잡는 깨끗하고 예쁜 그러한 모양의 접시에 몇개의 스시가 도란도란 앉아 있거나 몇점의 야채튀김이 얹혀있는 모습은 흡사 그림이다. 음식 이전에 미학(美学)을 생각케 한다. 그네들에겐 순수한 전래(伝来)의 미각을 보존하면서 꾸준히 개량하는 노력이 뒤따르고 있다. 고객의 대부분이 백인인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지가 언제부터 귀족이나 된 것처럼…한국음식은 말야, 이렇게 뭉실뭉실 떠서 우적우적 씹어야 제맛이 나는 거야."

이것이 한국 고유풍습의 보존이며, 2세들에게 물려줄 유산이고, 우리의 Identity이고, 이 나라 모자이크문화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굳이 주장한다면 할 말은 없다.

〈서평〉

유인형수상집

「에드몬톤의 불꽃」

박충도 (전 문협회장)

여동원씨의 수상집〈이민낙서〉에 이어 두번째로 멀리 에드몬톤에 거주하는 문협회원 유인형씨의〈에드몬톤의 불꽃〉이란수상집이 선을 보였다.

이민이란 역경 속에서도 이처럼 훌륭한 작품집을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은 오직 유인형씨의 작가적 정신과 숭고한 자기 희생의 결과라 여겨지며 이는 우리 이민 교포 사회뿐 아니라 전한국인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나온 유인형씨의 수상집은 그의 특유한 필재로 엮은 아름답고, 서정적이며 더욱 시적인 문장으로 가득찬 작품집으로 모두 3부, 222페이지의 양적으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방대한 책이다.

1부의「오늘도 보호를」은 캐나다라는 서양문명에 처음 접할 때 누구나 당하고 느끼는 과학문명과 그 속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의 긴박감을 묘사하면서 처음 당하는 이질적인 서양사회에서의 무사함을 기대한다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하여「낚시」에서는 약간 자리가 잡히고, 마음의 여유를 찾은 후 캐나다의 대자연을 감상하고, 정서생활을 시작하는 내용이다. 그리고「한적한 마음의 빈터에서」는 서양사회에서의 물질적 풍요를 느끼나 인간미 상실, 즉 "물질 위주의 메마른 삶속에서 공허한 것만이 도사리고 있기가 필연이다. 욕망에는 충족보다 좌절과 몸부림으로 채워지기가 일쑤인 것이다…"라고 하면서 보다 정서적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기대해 본다.

그러면서「꽃속의 숨소리」에서는 "그냥 이대로 찬란한 태양과 꽃속에 파묻혀 며칠을 보냈으면 싶다…"고 함으로써 이러한 과학문명 속에서의 메마르고 비인간적인 생활을 탈피, 대자연 속에 뛰어들어 모든 것을 잊고 싶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풀잎」같은 글에서는 풀뿌리처럼 우리들의 뿌리를 튼튼히 내리기 위하여는 부단히 노력하고, 서로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이민의 착실한 정착과 그 속에서도 우리의 전통문화를 유지, 발전시켜 후세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야겠다(「첫걸음」)고 하면서 자랑스러운 코리언-캐네디언이 되어 이곳 모자이크문화의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눈속에 피어나는 꽃처럼」)라고 주장하고 있다.

2부의「동과 서」에서는 이민자로서의 어려운 입장과 제2세들에 대한 전통문화의 강조, 그리고 서로의 차이에서 오는 마찰을 그리면서 이러한 마찰을 슬기로이 잘 극복해야 하나 무턱대고 편리한 이곳 생활양식을 모방할 것이 아니라 잘 취사선택해야 한다.「장터」의 "베틀소리와 민요는 지금도 이따금씩 들려오는 것같다…", 또한 "장터만큼 진한 향토냄새가 깔린 곳이 없다. 전통적인 흐뭇한 정취마저 있는 것이다…"라는 말은 얼마나 한국적인 정서에 대한 향수인가.

그는 이곳의 지나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면보다 우리들의 서정미가 물씬 풍기는 장터를 우선시킨다. 또한「고추장」을 통해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새삼 느끼며, 못다한 효도를 가슴 아파하는 내용은 독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그리고 동양과 서양사회의 의식구조나 사회구조의 차이점을 비교, 서양의 장점도 있지만 역시 인간의 존엄과 온유의 너그러움이 있는 동양을 더 강조하고 있다.

제3부에서는 인간미와 서정성으로 가득찬 내 고향 한국에 대한 향수, 그리고 한국여성의 고고한 순결성과 숭고한 사랑등을 그리고 있다.

「영혼 속에 내려라」는 두 남녀간의 애틋한 사랑을 통한 청순하고 순결한 한국여인상을 시적인 문장구성으로 표현한 아름다운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유인형씨의 작품은 그 문장구성이 극히 시적이며 정서적인 것이 특징이며,「사냥꾼」,「봄바람」같은 작품은 독자들을 자연 속으로 이끌어, 마치 자신이 자연 속에 파묻혀 버린 착각마저 느끼게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방대한 양의 작품은 읽어보기도 전에 독자들을 위압해 버리지나 않을까 하는 기우를 갖게 하나 한번 읽기 시작하면 좀처럼 손을 뗄 수 없을만큼 독자들을 매혹시킬 수 있는 작품집이라고 하겠다.

생활영어

민병철 담당
(시카고 한인 영어연구원장)

HE'S GONE OUT OF BUSINESS.

미국행정부의 유가통제철폐 발표가 있은 직후 뉴욕의 Buffalo와 캐나다의 Ontario를 잇는 Peace Bridge(평화의 다리)를 건너는 미국인들의 숫자가 급증했다.

이렇게되자 업주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연방정부에 이미 주유소가 500여곳이나 문을 닫은 Buffalo지역을 경제재해지역(economic disaster area)으로 선포할 것을 건의하고 긴급 재정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휘발유를 넣으러 가는 차량을 막기위해서 캐나다로 들어가는 국경 입구를 차단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대표자중의 한 사람은『One out of four stations has already gone out of business.』(평균 4개 주유소중에 한 군데는 이미 문을 닫았읍니다)라고 취재기자들에게 말했는데 이 대화의 마지막에 나오는 out of business를 넣어 영어로 옮겨 본다면 He's gone out of business.라고 하면 된다.

실제로 캐나다까지 기름을 넣으러 다니는 한 미국인은『I'm saving money and helping conserve American gasoline at the same time.』(캐나다 기름을 쓰는것은 돈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미국 기름을 아끼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A: What happened to Joe's gas station?
B: He's gone out of business.
A: Why is that?
B: Everybody in Buffalo is going to Canada to fill up his tank.
A: That's too bad. What about your station?
B: It's the same for me. I'll have to go out of business before too long.

A:조—우 주유소가 어찌된 셈이죠?
B:망해서 문을 닫았읍니다.
A:왜 그렇게 됐읍니까?
B:버펄로우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캐나다에 가서 기름을 넣기 때문이죠.
A:참 안됐군요. 당신네 주유소는 어떻습니까?
B: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지않아 곧 문을 닫게 될겁니다.

fill up:채우다.
*What about…:상태가 어떻습니까?
*How about…는 권유의 뜻을 나타낼때 사용
*before too long:얼마 안 있어. 곧

이연재물의 필자가쓴「생활영어」1, 2, 3, 4권을 구입하려면 B.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S.A. 로 수표나 모니오더를 보내면됩니다. 가격은 권당12달러(판매세및 우송료포함) 전화:(312)966-4050

이 세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성경강연회

초청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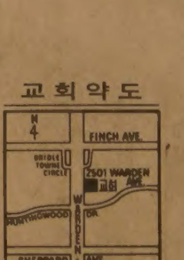
오늘날의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정치, 경제, 군사, 그리고 사회의 이례적 사태들은 단순히 우연한 일들인가, 아니면 성경의 예언에 따라 이루어져 가고있는 한 단면을 이야기하는가를 함께 생각하고져 한 기간을 마련하였읍니다.

인류 역사는 어디를 향하여 줄달음쳐 가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의 뒤안길에 살고 있는 우리 각자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며, 또 어디에서, 어떻게 그 참다움을 찾을 수 있을런지…….

짧은 기간이나마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공통된 관심사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바람과 함께 여러분들을 초청하오니 참석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보람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지구는 고장난 비행체이다
인구폭발, 기상이변, 식량위기, 석유파동, 공해, 핵무기의 공포, 대지진등
●성경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창조냐? 진화냐? 내세의 유무, 이적의 가능성등
●쏘련의 이스라엘 침공설은 사실인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인류의 종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인생은 많은 문제를 안고있다.
생의 의미, 죽음, 내적갈등, 구원등의 많은 문제
●거듭(구원)나지 못하고 사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 멸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과연 당신은 들림받을(휴거) 준비가 되어있는가?

교회약도



● WARDEN SUBWAY에서 68번 버스(FINCH행)를 이용하실수 있읍니다.
● 집회기간중 어린이를 돌보아 드립니다.

● 강사 : 소 천 섭 목사(국제선교협의회 사무총장)
● 일시 : 1982년10월21일(목)~26일(화). 저녁 7 시30분부터 (일요일은 오후 2 시부터)
● 장소 : 2501 WARDEN AVE. SCARBOROUGH(BRIDLEWOOD PRESBYTERIAN CHURCH. SHEPPARD와 FINCH 사이)
● 연락처 : 439-1964

기독교복음침례회토론토교회

한인학생 영어 수준 미달
학교수업 못 따라간다

〈LA지사〉

캘리포녀주내 초중고등학생중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인학생수는 모두 1만3백28명인데 이중 7천4백72명이 제한된 영어능력소유자(Limited English Proficiency)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숫자는 캘리포녀주 교육청이 금년 봄학기 집계한 통계에서 밝혀졌는데 이들 제한된 영어능력소유자(LEP)는 영어능력의 부족으로 학교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한국어를 구사하는 이중언어교사의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형편이다.

캘리포녀주교육청의 박충국자문관은 이러한 LEP학생의 지도를 위해 최소 2백43명의 한국어구사 이중언어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교육청자료에 따르면 과거 15년간 캘리포녀주의 소수민족학생의 증가로 LEP학생 수도 증가되어 이 LEP학생수는 각각 전체 소수민족학생수의 25%(67), 36%(77년), 그리고 41%(80년) 증가됐으며 1990년에는 56%로 증가될 것으로 나타났다.

트루도 TV출연
3일간 CBC서 담화

(오타와)피에르·트루도 캐나다수상은 경제에 관한 일련의 "노변정담"(Fireside Chat)을 하기 위해 금주 연3일저녁 15분씩 TV화면에 나온다.

이 노변정담은 19일(화요일)부터 매일 CBC의 영어및 불어망을 통해 방영된다.

트루도 수상은 실업, 인플레, 금리등 캐나다가 안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문제는 물론 세계적인 불경기와 이것이 캐나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언급한다.

수상이 사임을 한다던지 혹은 새로운 경제정책에 관해 "어떤 중대발표를 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미첼·기란 수상통신고문이 밝혔다.

트루도의 담화에 이어 보수당과 신민당 당수들도 15분간의 트루도수상의 발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루도수상이 TV와 라디오에 연일 모습을 나타내기로 결정한 것은 현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중국어학교에 관해 발표하는 채로잔씨.

중국어학교의 언어유지노력
채 로 잔 (위니펙중국어학교 교사)

다음의 글은 지난 8월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위니펙에서 개최된 제2차전 캐나다 한인한글학교 대표자회의에서 발표된 각 민족언어학교 대표자 강연중 중국학교 대표 채로잔여사의 발표내용이다.

번역은 김원겸박사(위니펙 한글학교)가 맡았다.

다른 민족의 언어교육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계속 이탈리아, 필리핀, 우크레이나등의 모국어교육 현황에 대해서도 계속 연재할 계획이다.

마니토바 중국학원은 1974년에 관심있는 여러 부모님들의 노력으로 8년전 창설됐다. 이학교의 단체 구성을 보게되면 비영리 자선단체로서 년총회에서 집행부요원및 이사를 선출하여 중국말 지도뿐만 아니고 기타 문화관계의 강습도 하며 집행부는 5명의 임원으로 운영된다.

현재 학교교실은 시교육당국의 허가로 공립학교 교실을 빌려쓰고 있는데 매주 2시간 강의에 20분 휴게시간이 있고 이후 각자의 취미에 따라 한시간의 과외시간이 있으며 주로 중국고전그림, 무용및 음악을 가르친다. 이 과외시간에 학생들은 자기내들의 동족의식과 친근감을 품게되어 큰 효과를 보고 있어 토요일아침 학생을 억지로 끌고 오지않어도 되도록 된것 같다.

현재 90명의 학생이 있는데 5세부터 대학생까지 있으며 원래 광대한 지역 배경차이, 언어차이로 나이도 관계되지만 지방어를 중심으로 8반을 구성하여 교사2명이 담당하게 되여있다.

학교장, 선생및 집행임원은 모두 자선 무보수직업이나 모두 책임있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것은 이학교의 자랑으로 삼고 있다. 또한 고용인·고용주 상호간의관계가 없음으로 운영은 더잘 되는것 같으며 학교운영 방침은 선생님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과거에 선생님들에게 보수를 줄것을 제안했으나 선생님들이 늘 부결하고 말았다. 교사진은 선생님들의 지도의욕은 보수에 의하여 야기된 것이 아니고 상호간의 번영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 보기 때문이라 한다.

학부형들의 학교운영 참여가 또한 가장 큰 역할을 가지고 온다고 본다. 각 부모님들은 최소 한번 토요일에 학교에 오셔서 수고하게 되여 있으며 과외시간에 학생들을 돌보게 되며 시간이 되면 종도치고 휴식시간이면 간식 과자등을 돌리고 도서관 책 정리등을 보살펴 보고있다. 그리고 학교등록시 학부형은 각 학생의 숙제를 각 가정에서 책임지고 지도할 것을 다짐 받는다. 즉 학생들을 단지 학교에 데려와서 놓고 감으로써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리라고 기대하지 말것과 선생들을 단지 값싼 "베비시터"로 생각하지 말라는 점을 강조한다. 예로 학생이 한시간 학교에서 음악공부를 했던들 집에서 열심히 하지 않는 한 진보가 없는것이다.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아주 초급학생들은 "단어배우기"를 유희로 배우며 "몸짓과 소리"를 겸해서 배우고 있다. 또는 종이를 짤라 글을 만들고 음악을 겸해서 배우기도 한다." 실제 단어를 많이 배우기보다 흥미 중심이 큰 목적인것 같다.

학생이 글을 쓰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간단한 것부터 쓰기 시작하여 차츰 쓰기 복잡한 것으로 올라간다. 중국말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왼쪽부분이 의미를 말하고 바른쪽부분이 소리로 나가게 되여있다.

중국말은 상중어로서 글이 모양을 타고 발전하여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여러가지 글의 왼쪽부분과 바른쪽부분의 모양을 종이로 짤라 준것으로 누가 가장 많은 말을 만드는가 하는것도 가르치고 있다.

학교운영 문제에 가서는 교재가 부족하고 교과서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 홍콩이나 중국 본토에서 작성한 것으로 이곳 지도방법에 맞지 않는것 같다. 곧 교과서가 나오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의 문제는 교사들의 대부분이 의견 교환으로 자향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또 전문가에 의논하기도 합니다만 오는 한글학교 대표자회의와 같이 저희들도 중국어교육에 관한 전 카나다대표자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현재 마니토바대학에서 거행되고 있는 회의에는 90명이 카나다 각처에서 참석하고 있으며 교과편찬에 관해 전 카나다적인 책과 교과내용이 구성될 것으로 본다.

◀ 바로 잡습니다 ▶

지난 16일자 4면 광고중 「김회몬옹의 칠순 회갑잔치를…」은 『김시몬옹…』으로 바로 잡습니다.

7면 웨딩드레스 오프닝리셉션일 자는 10월15일(금) 오후 6시로 바로 잡습니다.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3의 사나이

<88>

얼굴없는 死者 ⑫

被殺者의 손톱에서 피와 섬유질이…

두번이니 이혼했다는 말을 그는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 간단하게 해치웠다.

『아니, 뭐라구? 두번이나 이혼했단 말이야?』

늙은 형사는 어이 없다는듯 그를 바라보았다. 젊은 형사는 멋적은 웃음도 웃지 않았고 무표정했다.

『네, 그런 셈이죠.』

『아니, 어쩌다가 그 나이에 두번이나…』

『처음에는 좋아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살다보니까 너무 거추장스럽더군요.』

『아무리 거추장스럽다고 두번씩이나 이혼하다니 난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데.』

『저한테 문제가 많지요.』

『자식은 있나?』

『네, 딸이 하나 있읍니다. 여섯살 먹은 딸입니다.』

『그 애는 누가 돌보나?』

『어머니가 돌보고 계십니다.』

겉으로 볼 때 그는 아주 마음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놀랄 수 밖에 없군.』

늙은 형사는 중얼거리면서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파형사가 화제를 갑자기 돌려 물었다.

김형사는 눈을 거의 감다시피하고 허공을 바라 보다가 말했다.

『내 생각에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 순전히 기분이지만 육감에 어긋난 적은 거의 없었어. 아직 피살자의 신원도 못밝혀지 않아?』

『그렇긴 합니다만…』

『파형사는 어떻게 생각하나?』

『전 아직 잘 모르겠읍니다. 다만 몇가지 점에 주의하고 있읍니다.』

『그게 뭐지?』

그들이 함께 일한지는 불과 6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깊은 관계라고 까지 말할수는 없었다.

『첫째 피살자의 지문이 컴퓨터에 나타나지 않은 사실입니다. 둘째는 그의 혈액형이 특별하다는 점입니다. RH(ㅡ)형이니까 아주 드문 혈액형입니다. 그것은 외국인 들에게 많은 혈액형이죠. 그 세째는 그의 신체조건입니다. 그는 내국인치고는 신체가 크고 팔다리가 긴 편 입니다. 네째는 그를 독살시킨 청산에 관해서입니다. 시안화수소는 알아본결과 구하기 쉬운 약품이 아닙니다. 약국 같은 곳에서는 사기가 힘들고 병원이나 제약회사 같은 데서나 입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섯째는 그의 몸에서 채취한 섬유질 조각입니다.』

『섬유 조각이라니? 그는 벌거벗긴채 잘리지 않았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경하기 전에 저는 피살자의 손톱밑에서 가는 실오라기 몇개를 채취했읍니다. 육안으로는 흘려버리기 쉬울 정도로 아주 작은 것들인데 손톱이 너무 더러워서 생낭개삐로 파보았더니 그런 것이 나왔읍니다. 손톱이 길었고 피가 엉겨 있어서 그것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었나 봅니다.』

『음, 그래서?』

『그것을 과학수사연구소에 검사 의뢰했는데 알아보았더니 카피트 조각이라는 결과가 나왔읍니다.』

『대단한 성과군.』

늙은 형사는 확실히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朴男 그림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 243~9544
해밀톤지점 ☎: 1~385~1485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1391 WESTON RD

훼밀리·닥터 (의사 왕윤린)
(B) 968-1543 · R) 363-9196
600 SHERBOURNE ST. #402
월~금: 오전10시~오후7시
토: 오전11시~오후3시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SBS Specialized Business Systems Limited

PAPER-SERVICE-REPAIR
⊙품목: ●각종 전자캐쉬레지스터 (파나소닉, TEC, SHARP, NCR등등)
●저울 ●복사기

세일기간
10월12일 ~ 10월23일
〈2 주간〉

교민 여러분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저희 회사에서는 특별쎄일기간을 설정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기계를 다시 구입코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쎄일기간을 설정하고 여러분께 봉사코자 합니다.
사무실이나 어떤 가게든지,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 품목에 특별할인해 드릴 것이오니, 일단 값을 비교해 보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수 일 올림

※모든 기계에 대해 책임판매로 100% 보증.
822 THE QUEENSWAY (퀸스웨이×이슬링톤)
☎ (B 252-7377 (R 762-4536

한국일보
우리의 理想은 健全한 新聞

"各級校공납금 引下하라"

本會議 질문마쳐 KAL競爭社·철도公社 설립은…

"「학생의 教授評價」 계획없다"

百개大企業중 71개에 勞組

政府답변

국회는 13일하오 社會분야에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本會議의 對정부질문을 모두끝내고 14일부터 본회의를쉬고 소관부처현황청취와 야당이 제출한 政治議案등을 다루는제2차常委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마지막對정부질문에서 孫春吳 張聖萬 (이상民正) 趙鍾益(民韓) 金順圭의원 (議政) 등은의료보험의문제점과 失業對策 학원문제와관광진흥대책과 사회윤리문제등을 광범위하게 제기하고 정부의 對策을 추궁했다.

◇귀기울이는 民意 對정부질문이 끝나는 13일하오 국회本會議 방청석에서 의원들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시민들.

孫春吳의원은 『전체국민의 60%가 의료보험을 받지못하고있다』고 주장 『저소득층에게로 시혜가 확대실시될수 있도록 1·2종醫保를 一元化하라』고 촉구했다. 그는▲의료機器의 수입關稅면제▲기초의학 전공자의 兵役특혜등 의료무제를 집중추궁하고▲고용기회의 확대와 창출을위한 長短期대책▲정부각부처에 분산돼있는 환경관계업무의 재편성을 촉구했다.

趙鍾益의원은 『의무경찰제 실시를 보류하고 이에대한 공청회를 열것을 제의하고』내년부터 실시예정인『대학생의 교수평가제』의 再考와特採인사제도 중지등을요구, 그는 또 정부의 失業者 구제대책과 아울러 많은大企業에노조가 결성되지않은 이유를묻고 『사회적으로 큰물의를 일으켰던 경제사건,瀆職사건의 관련피고들이 2審단계에서 풀려나는 법적근거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張聖萬의원은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사회윤리강령을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지방에 亂立해있는 類似단체를 조사, 기능이 유사한 단체는 통폐합하고 행사도 감축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철도청을 기업체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고 ▲대한항공(KAL)의 獨占을 막기위해 경쟁회사 설립필요성 ▲택시면허제를 등록제로 할 용의▲철도재건법제정필요성등에관해 따졌다.

金順圭의원은 사회淨化운동등 각종 국민운동을 하나의 이름으로 통합할 것을 주장하고 『공직자 윤리법을 약속대로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명백한 의지를 국민앞에 재천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사법경찰의 독립▲각급학교 公納金인하▲근로자의 適正賃金制실현▲검찰이 직접수사한 책임수사체제도확립▲범죄피해자 보상제도와 농어재해보상제도의 보강필요성을 물었다.

金相浹국무총리는 답변에서 의료보험의 一元化문제에 대해 『80년대말까지는 전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해 一元化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히고 『기본방향은 재조정하는 근본문제이기때문에 財源조달, 2種의료보험시범사업결과, 의료자원의배치등 국민醫保險에 대비한 종합검토를 의료보험연구위원회에서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盧泰愚내무장관은 宜寧사건에대해 『그동안 군경 예비군 민방위대의 연계적 운영체제를 확립, 운영해온 결과 월등히 향상됐으며 비상동원체제, 주민신고체제도 향상됐다』고 말했다.

裵命仁법무장관은 개방정책에따른 범죄와 出入國대책에대해 『우범용의자에 대한 각관계부처간의 순환관리제를 마련중에 있다』면서 『재외공관장에게 査證발급권한을 대폭위임하고 재외국민들은 사전입국신고없이 出入國을 자유로이할수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李奎浩문교장관은 학생에의한 교수평가제도는 계획한 사실이 없으며 교수강의평가는 학교의자율적인 방법으로 강구해나갈문제』라고 말하고 문제가된敎女經이나 進路지도교육자료는 배포한일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기초醫學 전공자들도 다른대학원생들과 마찬가지로 兵役특혜를 받을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金正禮보사장관은 『90년에 수입한 超短波영사진단기등 고급의료기자재는 88종에 2천5백23만달러이고 81년에는 1백9종에 3천6백15만달러를 들여왔다』고 말하고 『그러나 國産의료기 자재산업육성을 위해 高價수입기자재의 減稅는 고려할수없다』고 밝혔다.

鄭漢株 노동장관은 『82년 6월현재 실업률은 3.8%로 60만명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이중 非농가실업률은 농가보다 훨씬높은 5.6%이다』고 답변했다.

金相浹국무총리는 『관광진흥을위해 현재 총리를 위원장으로한 관광정책심의위원회를 한·일관광기획단을 발족시킬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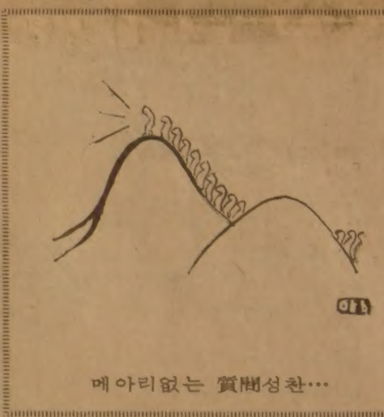
盧泰愚내무장관은 『지방의 유사단체를 가능한 범위안에서 통폐합하기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하고 『각종행사에 대해서는 행정간소화방침에따라 통합조절하고있으며 전시낭비적 풍조를 시정토록하겠다』고 강조했다.

金保社, 小委답변 "醫保, 1·2종 一元化 尙早"

金正禮보사부장관은 13일 상오 국회保社委소위(위원장 崔永喆)에 출석, 제1種과 2種의료보험의 一元化는 현시점에서는어렵다고말했다.

그는 이어 제1種의료보험(기업체근로자, 공무원, 교원대상)과 제2種의료보험(농어민,自營業者대상)을 一元化할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이 엄청나게늘어나고 또한 1種보험 가입자인 기업체들로부터 심한반발이 우려된다는등의 이유를 들어 이같이 밝혔다.

社會漫評



메아리없는 質問성찬…

高麗青磁가마 또 4곳發見

全南康津서 作業室등 옛모습 그대로

굴껍질도 많이쌓여…釉藥재료 추정

【康津=金周彦기자】아직도 신비의 베일에 가려 있는 高麗青磁秘色의 생성과 발달과정을 풀어 줄 청자가마가 한꺼번에 네곳이나 발굴됐다.

國立中央博物館 高麗青磁陶窯址발굴단(단장 鄭良謨학예연구실장)은 지난해 8월 국내 최초로 완형의 청자가마가 발굴(본지 81년8월16일자보도)된 전남 康津郡 大口面龍雲里 옛 용운국민학교운동장터 인근 밭에서 또 다시 네곳의 가마를 찾아내는데 성공, 학계의 주목을 받고있다.

새로 모습을 드러낸네곳의 청자가마는 처음 발굴된 반경의 가마 인접된편 1백m 반경내에 흩어져 있으며 지붕은 훼손돼있으나 벽면과아궁이 작업실이 옛모습 그대로 간직돼있고 석실에 굴껍질이 수북이 쌓여있었는데 이석회질이 유약의 중요재료가 됐을것으로 발굴단은 보고있다.

가마한기의 길이는 8m 5 26㎝, 가마폭은 1m10㎝에서 … 반경2백m안에 네기의 가마군으며 자세한 처음발굴된 가마터의 크기와 형태가 비슷했다.

발굴단장 鄭실장은 이들가마들이 한군데 몰려있긴하나 만들어진 연대는 서로달라서 …것이 12세기초인데비해 왼편쪽의 가마터는 12세기전반의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純青磁(1050~1150)가 象嵌青磁(1150~1250)로 발달해가는 과정을 고려청자발달사연구하는데 결정적자료가 된다』고 말했다.

"核에너지로 資源難극복을"

全대통령, 原電9·10號機 기공식致辭

【蔚珍=尹國炳기자】全斗煥대통령은 13일『核에너지의 발견과 이용은 현대과학이 가져온 가장놀랍고 빛나는성과가운데 하나』라고 지적, 『엄청난 힘을 지닌 原子力은 올바른 목적에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현재의 세계적인 資源難을 극복하고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날하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慶北蔚珍郡北面富邱里에서 있은 原子力발전소 9·10號機 起工式에 참석, 致辭를통해 이같이 말하고 『특히 原子力을 이용해 산업활동의 動力이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전기를 생산해 낼수 있게됨으로써 우리는 급속히 늘어나는 電力需要의 증대에 능히 대처해 나갈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또『지금까지는 석유가 發電연료의 主宗을 이루고 있었으나 근래 잇따른 原油파동으로 세계각국은 석유의 物量확보와 가격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사실을 감안할때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요청이 아닐수 없는것』이라고 말하고 『더우기 우리나라와 같이 原油는 물론 이렇다할 에너지자원이 없는 자원貧國에 있어서는 대체에너지의 개발 활용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복지를 향상해 나가는데있어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야할 과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에는 이미 가동중인 古里원자력발전소 1號機이외에도 2·3號機가 내년중에 준공될 예정으로돼있어 이제우리는 이 9·10號機의 착공으로 89년까지는 모두 9개의 원자력발전기를 보유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總裁선출방법 4役이 決定"

스즈끼會見 非主流선 "總務會議서"

【東京=宋孝彬특파원】스즈끼수상은 13일하오 기자회견을 갖고 擧黨체제를 수립하기위해 차기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않기로했으나 『나의마지막 일무는 黨을 淸新한 풍토로 개조하는데 협력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스즈끼수상은 차기 총재선출방법은 黨4役등 당기관에서 결정할 문제이며 자기는 이에 대한 어떤 주문도 하지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非主流는 黨內각파의 의견을 종합할 시간적여유가 없다는 점을들어 14일에 열리는 당최고고문회의와 별도로 총무회의에서 총재선출방법을 논의할것을 주장하고있다.

獨立紀念館건립誠金

우리의 작은 精誠: 큰뜻 이루게

韓國造幣公社 (임직원 일동) 1千1百37萬원

在印尼 한국거류민회 1만1천弗
大新企業(株) 李起億대표外 1백63만원
富川畜産業協同組合 1백11만원
在바레인 한인회 1천3백弗
在獨교포14명 3백90마르크
在벨기에 한인회 5천프랑
美保險한국支社 67만원
東信管유리工業 66만원
서울동신국교 一同 48만원
韓國演劇協會 회원 20만원
여의도 김지현씨 20만원
대원사釜山별원 12만원
太古宗仙岩寺, 승려 11만원
양서아파트 3단지 11만원
蓄電池同友會員 10만원
대아산업대표外 10만원

<13일접수>

접수電話 722-4171

▲韓國造幣公社임직원一同=1천1백37만2천원
▲在인도네시아 한국거류민회=美貨1만1천1백53달러(인도네시아貨 7백57만2천9백루피아)(성금기탁자명단2면)【駐인도네시아대사관접수】
▲大新企業(株) 대표 李起億씨외직원一同=1백63만1천4백50원
▲富川地區畜産業協同組合임직원및 組合員一同=1백11만1천원
▲在바레인 한인회=美貨1천3백29달러【駐바레인대사관접수】
▲在獨교포14명=西獨貨3백90마르크【駐獨대사관접수】
▲在벨기에한인회 (회장 이범주)=벨기에貨5천프랑【駐벨기에대사관접수】

◇李起億씨

▲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 한국지사 임직원一同=67만2천원
▲東信管유리工業(株) 대표이사 徐廷燮씨외 임직원一同=66만3천7백원
▲서울동신국교 (교장 김광연) 전교생 (대표 6년 김정훈·홍선경·인솔교사 김낙용)一同 (2차분)=48만6백80원
【소년한국접수】
▲韓國演劇協會 (이사장 金正鈺) 회원一同 (추가분)=20만원
▲여의도 김지현씨=20만원
▲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사 부산별원주지 권상원씨외 신도一同=12만원
▲太古宗 仙岩寺승려 一同=11만7천원
【釜山지사접수】

◇서울동신국교대표들

▲江西區 禾谷洞 양서아파트 3단지주민一同=10만원
▲蓄電池同友會員一同=10만원
▲구미공단內 대아산업(株) 대표이사 박병호씨외직원一同=10만원
【順天지국접수】
▲관인새롬유치원원장 權大雄씨=2만원
▲새롬장수대학대표 權大雄씨=2만원
▲배움터새롬 (송독·미술·주산·서예) 대표權大雄씨=2만원
【구미지국 접수】
▲銅雀區舍堂1洞10통7반장 조신자씨외주민一同=7만6천원【사당보급소접수】
▲平澤郡浦升面내기국민학교5학년1반김종우군외학생一同=5만5천8백60원【浦升지국접수】

地平線

정체를 알수없는 버스크기의 타원물체가 서울·釜山등 전국각지 상공에서 12일새벽 5시40분께 목격돼 많은 화제를 낳고있다.

▼20세기 수수께끼의 하나인 UFO(Unidentified Flying Object)가 바로이것이다. 비행접시라고도 불리는 이괴물체가 지구상에서 처음목격된것은 1947년이다. 지금까지 세계곳곳에서 1만5천건이나 출현했다는 신고가 있었다 한다. 이가운데 40%는 과장되거나 날조된것으로 추측되지만 약2%즉 3백건만은 지구이외의 고등동물이 틀림없이 타고 있었다는 얘기들이다. 銀河系 10억의 惑星가운데는 지구보다 우수한 우주인이 존재해서 몇천년전부터 비행접시를 몰고 지구 상공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닌가, 가정을 해오고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목격된 괴물체는 길이 5m의 타원형, 눈이 부실정도로 강렬한 빛을 발하며 20m나 불꼬리를 뿜었다는 것이다. 경희대의 趙慶哲박사는 UFO의 모선일 가능성이 짙다고 본다가 하면 閔英基천문대장은 대부분의경우 기상관측용기구나 기상현상으로 밝혀질때가 많은데, 레이저 광선이 공중에서 구름에맞아 흩어질적에보이는 낮은 인공위성일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국내서 이런 괴물체가 처음 보인 것은 6·25때로 미공군조종사가 추적하다 놓쳤다.

▼그 정체에 관해서는 우주인 조종설 이외에 신병기 실험설, 流星, 氣球나 반비행기의 誤認, 구름때문에 생기는 빛의반사, 蜃氣樓, 妄想, 空想등 별의별 분석들이 많다. 미국 공군통계에 따르면 38%는 天體현상, 13%는 高空觀測氣球, 22%는 비행기, 2%는 날조, 25%는 정체불명으로 나타났다. 미국 비행접시연구위원회 회장인 도널드·E·키퍼 퇴역공군소령은 「진상」이란잡지에서 火星이나 金星등 딴우주인이 타고있는것이 틀림 없다고 주장, 충격을 준일이 있다.

▼뉴욕타임즈에도 비행접시보도는빈번하게나온다. 또 비행접시의 우주인을 봤다는 얘기도 단행본으로나온것이 많다. 키는 1m남짓, 체중16㎏, 피부는 갈색, 노란눈, 갈퀴같은 손을 가졌는데 이들과인터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다. 어디서 어디까지를 믿어야할지 모르지만 딴우주에도 생물체가 존재할수 없는 이상, UFO소동은 앞으로도 되풀이될 것 같다. 우리국내에서도 UFO의정체를 밝히는 연구가 좀더 활발해지면 좋겠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저 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The Permanent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mpany
1560 Bayview Avenue Toronto,
☎ : (B)488—2444 (R)759—4560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밴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전화 : (B) (416)497 8900 채 준 서
(R) (416)633 7892 (David Chae)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 오리엔탈 팰레스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트러,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외 문

CITY DRIVING SCHOOL
NOW YOU CAN GET SUPER SAVINGS ON A FULL AND COMPLETE DRIVER EDUCATION COURSE THAT IS GOVERNMENT APPROVED AN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ONTARIO SAFETY LEAGUE

YOUR COURSE INCLUDES
25 Hours in an Ontario Safety League Approved Classroom
9 in-car Lessons
Home pick up service in most areas at no charge
Your choice of days, evenings, Saturdays or vacation courses
Income Tax Receipt - All fees are tax deductible
A certificate upon graduation for insurance reduction that is Ontario Safety League Appro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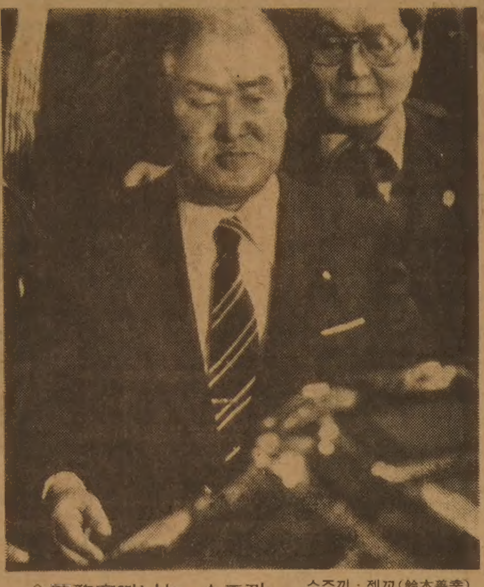
CALL 532-2626 532-3656
OUR COURSE FEE IS $149.00
THIS INCLUDES THE NATIONAL DRIVING TEST
CALL 532-2626 532-3656
ALL CLASSES ARE HELD AT 645 Bloor Street West
WE ARE LOCATED NEAR THE Bloor & Bathurst SUBWAY STATION (See Map)

THIS COUPON ENTITLES THE HOLDER TO
$24.00 off
THE REGULAR COURSE FEE OF $149.00
WHEN PRESENTED UPON APPLICATION
BRING A FRIEND AND SAVE EVEN MORE
FOR DETAILS CALL 532-2626 or 532-3656

「首相후계」쟁탈전

스즈끼 사임이 몰고온 日政局은

主流선 지명·非主流 표대결고집
스즈끼·후꾸다會談이 向方가름
제3人物 나올수도



◇執務室떠나는 스즈끼

스즈끼·젠꼬(鈴木善幸) 日本수상이 12일 次期自民黨총재선거에 출마하지않겠다고 발표한뒤 입을 굳게다문채 집무실을 떠나고있다. 【東京13日AP電話=聯合】

일본의 차기수상은 누가 될것인가。스즈끼수상의 돌연한 퇴진으로 집권自民黨은 「포스트·스즈끼」를 에워싸고 主流·非主流간에 불꽃튀는 정권쟁탈전이 벌어졌다。

정국의 초점은 스즈끼수상이 3분의2의 절대다수 議席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挙黨체제의 구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自退한 점을 평가, 그에게 72년미끼(三木武夫) 정권을 탄생시킨 「시이나 裁定」처럼 스즈끼 총재에게 지명권을 일임하는 쪽으로 모아지고있다。

고오모또(河本敏夫) 경제기획청장관과 나까가와(中川一郎) 科技廳장관등 일부 비주류에서는 예비선거에의한 총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14일 열리는 당최고고문회의와 15일의 스즈끼-후꾸다 양자회담이 향방을 가름할것으로보인다。

니까이도(二階堂進) 간사장등 黨집행부는 당론을 분열시키는 예비선거를 생략하고, 스즈끼수상의 지명권행사로 차기수상을 확정시키거나 各派대화에 의한 총재선출을 모색하고있으며 15일의 兩院합동의원총회에서 이문제가 정식으로 거론될것으로 보인다。

포스트·스즈끼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나까소네(中曽根康弘·65) 행정관리청 장관이 꼽히고있다。

그는 스즈끼수상의 정치목표였던 행정개혁을 강력히 추진했던 실무자였으며, 제1파벌인 다나까派와 함께 나까소네派가 스즈끼정권을 지탱한 주류의 양대지주란 점에서 先頭走者로 등장하고 있다。

나까소네장관은 스즈끼의 재선을 위해 처음부터 차기수상후보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 일찌부터 스즈끼수상의 재선을 지지하고 나왔고 정치생명을걸고 추진해 왔던 행정개혁에 몰두해온 점으로 보아 스즈끼수상의 지명권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 있는 후보로 지목된다。

스즈끼수상은 후계총재에 대해 흉중을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12일 黨4役에게 제시한 퇴진성명에서 『과거의 총재선거에 의해 파생돼 왔던 黨內의 응어리를 일소하고 淸新하고 無私로운 인재를 내세우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말해 다음 수상후보의 윤곽을 어렴풋이 제시하고있다。

청신하고 기예로운 인물에 누가 합당한 천인가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 異見이 있으나 대체로 수상을 지냈던 후꾸다씨나 60세인 고오모또씨는 적어도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일된 견해이다。

이에 대해 고오모또派는 즉각 반발, 71세인 스즈끼수상은 청신했던것이나면서 예비선거의 실시를 주장하고 있으며 비주류의 보스인 후꾸다씨는『수상을 지냈던 내가 다시 수상이되고싶은 생각은 없다』고 불쾌한듯 잘라 말했다。

이에따라 다음 수상 후보로는 다나까、스즈끼등 주류쪽에 바짝 붙어있는 나까소네 행정관리청장관과 비주류의 아베(安倍晋太郎) 통산상 (58) 으로압축될 전망이다。

이중에서도 스즈끼 수상의 지명권이 실현될 경우에는 나까소네 장관을 다음 수상후보로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제1파벌인 다나까派는 「스즈끼정권을 탄생시킨 은혜를 갚을시기가 아니냐」고 주장, 스즈끼수상이 다나까派의 니까이도 간사장을 수상후보에 지명하도록 스즈끼派에게 은근히 압력을 넣고있다。

그러나 니까이도 간사장이 록히드 사건에 관련, 灰色高官으로 낙인찍혔던 상처가 아직 아물지않은 실정이란점을 감안한다면 니까이도 간사장의 총재진출은 불가능한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당내 조정에의한 나까소네 정권의 탄생에대해 제일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은 라이벌인 고오모또 경제기획청장관과 나까가와 과기청 장관등이다。

이들은 어디까지나『黨내의 활성화를위해 당원대표에의한 예비선거가 치러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1백만 당원을 끌어모으기에 성공, 당원대표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오모또장관은 비주류의 보스인 후꾸다씨에게 아베통산상과함께 나까가와 과기청장관등이입후보할수있도록 다수파포섭공작을 계속 추진할것을요청하고있다。

금년70세인 고오모또 장관은 나이도 있어 이번이 수상으로 진출할 마지막기회라는 점에서 예비선거에서 주류의 나까소네와 龍虎相搏을 벌일 심산이다。

주류의 나까소네장관과 비주류의 고오모또와의 싸움이 지나치게 격렬해질경우 제3黨인 아베 통산상이 漁夫之利의 후보로 대두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비주류의 領袖인 후꾸다씨는 총재를 대화에의해선출한다는 명분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있으나 추천인물이 당내 각 파벌에서 수긍할수없는 사람일경우에는 黨規에따라 예비선거를 실시하자는것을 막을수는없다는 엉거주춤한 자세를 보이고있다。

후꾸다씨의 속셈은 대세가 스즈끼의 나까소네지명으로 기울어질경우 후꾸다派가 나까소네 정권탄생에 결정적역할을 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는데 있는것으로 보인다。

나까소네장관은 1947년 총선거때 28세의청년나이로 衆議院의원에당선, 정계에 첫발을디딘이래 14선의 관록을 쌓았다。

청산유수같은 달변과 행동력으로 「청년장교」란는 별명을 얻었다。

東京대학 法學部를 졸업, 내무성에 들어가 관료생활을하다가 태평양전쟁중에는 해군중위로 참전했다。

그는 이것이 계기가되어 방위청장관까지 역임케되고 運輸相 통산상 과기청장관 당간사장 당총무회장을 두루 거쳤으나 정작 수상이되기 위한 필수파벌인 藏相과 외상을 지내지못한 것이 흠이되고있다。

그는 80년5월 오오히라내각불신임안이 제출됐을때 비주류에서 오오히라 다나까양파에 접근, 주류쪽으로변신했다。

스즈끼 정권 발족후에도 다나까派와 계속 연결을지어 우의를 돈독히 하면서 스즈끼이후의 權座에 오를 꿈을 키워왔다。

나까소네장관은 정세판단이 빠르고 주류쪽에 잘붙어 정치적변신을 잘한다는점을 꼬집어 「바람개비」라는 달갑지 못한 별명을 듣기도하나 「保守本流」가 아닌 그로서는 정권을잡기위해서 주류쪽에 접근하는 것이 어쩔수 없을것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많다。

일본 상께이 신문이 79년 新年특집에서 1천5백명의 자민당 당원들을 상대로 차기 총재의 유력한 후보를 물은 결과 나까소네 장관이 1위였고, 2위가 미야자와(宮澤喜一)官房장관, 3위가 다께시다(竹下登) 간사장대리로 나타났다。

수상이 될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 나까소네장관이 최유력후보로 꼽히고는있으나 과거 가장 유력한 후보가 수상이되지 못했던 前例도 많았다。

나까소네장관의 가장 유력한 對抗馬인 고오모또장관은 1959년1월 고향인 효고(兵庫)縣에서 첫당선이래 13선議員。

日本大學을 졸업한후 三光氣船을 창립, 이를 바탕으로 재력을 쌓아 정계에 투사한 이론과실제에 밝은 경제통이기도 하다。

철저한 합리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그는 미끼수상과 함께 청정한 정치를 주장해왔으며 미끼파벌을 인계받아 고오모또파벌과 독립, 수상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제2차 사또내각때 郵政相으로 입각한뒤 미끼, 후꾸다, 오오히라, 스즈끼 내각을 통해, 통산상 3번, 자민당 政調회장 2번, 경제기획청장관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철저한 정치정화와 평화외교를 내세우고 있고 종합안전보장등을 강조하는등 이상정치에 흐르는감이 있다。

나까소네장관과 같이 고오모또장관도 이께다(池田), 사또, 다나까, 후꾸다, 오오히라로이어지는자민당 保守本流가 아니라 亞流라는 점에서 취약점이 있으나 反다나까 투쟁에 언제나 후꾸다편에 서왔다는 점을 후꾸다파를비롯한 비주류가 결속 시키는데 유리할것으로 평가되고있다。

주류가 강력히 밀것으로 예상되는 나까소네와 비주류의 對抗馬인 고오모또와의 접전이 크면 클수록 당내 파벌간의 화해를 위해 제3자인 아베통산상이 유력한 후보로 등장할 공산도 없지않다。

자민당 뉴리더의 최선두주자인그는 노인천국인 일본정계를 젊음이 약동하는 정치로 일신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촉망받고 있다。

東京大學法大를 나온 아베장관은 毎日신문사에 입사, 정치부기자생활을 하다가 정계에 투신한후 8선의원을 지냈다。

기시前수상의 사위인 그는 미끼내각의 農林相, 후꾸다 내각의관방장관, 오오히라 및 스즈끼 내각때 당政調회장을 거쳐 총재수업을 순조롭게 이수했다。

그는 깨끗한 정치의 실현과 미국, 한국등 자유진영과의 유대강화를 강조하고있다。

【東京=宋孝彬특파원】

메아리

退場美

政治는 退場의 美學이다。

팡파르를 요란하게 울리며 새로 登場하는것도 화려하지 않은것은 아니지만 政治에서의 깨끗한 退場은 아름다움의 極致라 할수 있다。어느 운동장에서의 勝者의 당당한 退場도 政治에서만큼은 아름답지 못하다。

絶對王政의 시대에는 잘 다스리는것이 王者의 美德이었다。退場이 없는 王은 잘 다스리기만하면 賢主였다。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善政이었더라도 그政治에는 착함과 현명함이 있을뿐 아름다움이 없다。政治는 백성이 잘살기만 하면 되는것이 아니다。아름다와야한다。운동장에서의 커다란 매스게임처럼 아름다와야 한다는것이다。

政治가 아름답기위하여 絶對王政대신 民主主義가 등장했다。民主主義는 나라를 잘 다스리기만해서 되는것이아니다。잘 다스리고 그리고 잘 물러나야한다。당당한 退場을 혐오한 治積보다 우위에 두고싶은것이 民主主義의 理想이다。깨끗한 退場의 전통을위하여 民主主義는 파시즘의 시련을 겪었고, 나치즘의 과욕도 당했다。이제 아름다운 退場이 없는 政治는 政治가 아니게되었다。

民主主義는 국민의 創意가 다스리는 政治다。創意가 있는곳에 항상 아름다움이 있다。

작년 5월 미테랑이 프랑스대통령에 당선된 후 지스카르·데스탱 전대통령은 새대통령에게 업무를 인계하고는 혼자 엘리제궁의 마당을 걸어나와 정문바깥의 길모퉁이에 세워둔 자기차에 올랐다。차를 엘리제궁안에 세우지 않은것이었다。지스카르가 차를 자기 손으로 직접 몰고 파리시내의 자택에 당도하자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은 당선자보다 않은 환호를 그에게 보냈다。아름다운 퇴장이었다。이것은 국민이 연출한 퇴장의 경우다。

12일 鈴木 일본수상은 돌연 사임을 선언했다。착잡한 黨內 사정이 있었겠지만 내세운 이유는「黨의 화합을 위해서」다。흙탕물 속에 발을 담그지 않겠다는 뜻이다。깨끗한 발씻음이다。

現代史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퇴장의 모범은 1976년 3월 갑자기 영국 수상직을 내놓은 윌슨卿의 경우일 것이다。

『이제 나이60세가 되었다。나는 물러난다』면서 두차례에 걸쳐 도합 7년반동안 재임한 수상직을 중도에서 사임했다。윌슨은 평화시 수상으로서는 영국에서 가장 장기간 집권한 사람이었고10세때 이미 어머니에게 장차 수상이 되겠다고 장담한 의지의 정치인이었다。그런사람이 60회생일이 지난 며칠뒤 공원의 벤치에 앉았다가 일어서듯이 훌훌털고 자리를 떠났다。실로 감격적인 퇴장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퇴장이 아름다움이 아니던 시대의 한 皇帝의 퇴장과 비교할수 있을는지 모른다。

나폴레옹은 연합군에 패하자 파리남쪽의 퐁텐블로궁에서 항복문서에 서명했다。지금은 관광명소가 되어있는 이궁전을 찾아가보면 넓은 앞뜰을「고별의광장」이라 부른다。나폴레옹이 엘바섬으로 유배되어 가면서 휘하의 노병들에게「조국에 충성하라」고 연설을 하고 떠난곳이다。그뿐이었으면 그의 퇴장은 기억될뻔했다。그러나 그가 엘바섬을 탈출하여 백일천하 끝에 워털루전투에서 패하자 찾아간 곳은 파리교외의 마르메종이었다。마르메종에는 나폴레옹의 황후이던 조세핀이 살던집이 지금도 남아있다。나폴레옹은 조세핀이 이미 죽고없는 이 집에 와서 하룻밤을 묵고는 길을 떠나 프랑스탈출을 탈출하려다가 영국군에 붙잡혀 세인트헬레나섬으로 유배당했다。이 마르메종의 집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오지만 이 집이 나폴레옹의 퇴장의 땅인 줄은 프랑스사람들도 대부분 모른다。대 영웅이었지만 그의 퇴장은 이렇게 쓸쓸했고 지금 잊혀졌다。皇帝의 시대에는 퇴장이 政治의 美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金聖佑 <編輯委員>

◇세계서 가장 큰 수정바위

西獨의 뮌헨 박물관에서 보관중인 세계에서 가장 큰 수정바위의 찬란한 모습。지난 81년 아칸소의 블루커리드광산에서 채굴된 7·5톤 무게의 이수정바위는 싯가 16만달러라는 것。【뮌헨12日UPI電話=聯合】

海外토픽

다이애너王妃 1위
★英서 가장옷잘입는 女性

지난해 세기적결혼의 주인공이었던 찰즈황태자비가 최근 한 여성잡지에의해 실시된 애독자투표결과 영국에서 가장 옷을 잘 입는 여성으로 뽑혔다고。【런던=聯】

女軍에 化粧術강습
★美육군 훈련기간동안에

美육군은 여러 화장술강습기관들에 여군들이 美사우드캐롤라이나州의 포트·잭슨에서 군사훈련을 받는기간중 어떻게 화장을 할 것인지를 강습해주는 댓가로 얼마의 수수료를 받을 것인지 입찰에 응하도록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유일하게 여군화장술 강습입찰에 응한 사우드캐롤라이나대학은 여군들에게 화장술 강습을·해주고 1년간 화장품을 공급하는 댓가로 30만9천4백달러의 엄청난 가격을 요구, 담당장교들을 깜짝 놀라게했다고。

그런데 화장술 강습계획에 책정된 예산은 고작 2만달러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콜럼비아=聯】

"蘇機 몰려온다"고의 誤報
★런던放送局, 청취율 높이려고

런던의 한 방송국은 소련 미사일과 폭격기들이 컴퓨터 조작실수로 영국을 폭격하기위해 현재 영국으로 날아오고 있다고 보도, 잠시동안 런던 시민들을 공포속으로 몰아넣었다고。

이 방송국은 50초동안에 걸쳐 소련 미사일의 영국폭격사실을 긴급보도한 직후 이는 당시 이방송국에서 열리고있던 방위문제 토론에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그사이 시민들은 경찰에 사실을 확인하거나 가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전화통에 불이날정도로 법석을 떨었으며 이 프로담당 연출가는 그 결과 정직처분을 받았다는 것。【런던=聯】

北傀 外交官들의 醜態사례
이디오피아서 이발·세탁료未拂 뺑소니

【서울=聯】 UN駐在 北傀대표부공관원 吳남철등 직원 3명이 美國인여성 醜行사건으로 물의를 야기시키고있는 北傀는 이번 醜行사건이외에도 그간 國際外交街에서갖가지 추태를 보여왔는데 그대표적인 事例를 열거하면。

▲70년9월 阿洲콩고에서 反政府게릴라 조종혐의로 北傀현지대사관직원 3명 추방 ▲73년 카이로駐在 北傀대사(당시使大 金영순)가 反政府학생데모선동혐의로 주재국에의해 강제추방 ▲73년7월 스웨덴으로부터 鑛山장비등 5억7천5백만크로나상당의 상품代金 최근까지未拂 ▲76년8월 이디오피아를 방문한 北傀경제대표단이 호텔숙박시 이발료와 세탁료를미불한채 뺑소니, 이디오피아정부가 北傀대표단의 숙박호텔에 代納 ▲76년4월 駐수단北傀대사관이 4년간기거한 아파트임대료를 지불못해물의, 惹起。

▲77년9월 파키스탄에 수출한 北傀産 移秧機2천臺中 1차로 2백대수출한 제품의 품질粗惡으로 격렬한 정부의 항의로 물의야기 ▲76년9월 스칸디나비아 5개국에서의 北傀공관원들의 마약밀수사건으로 당시스웨덴大使 吉在慶등 16명 추방됨 ▲79년4월 네덜란드유학생 高상무씨 被拉, 모스크바학술대회에 참석한 한국鳥類학자 元炳旿교수 拉致미수 ▲80년4월 阿洲수단駐在공관이 수단항공사에 발행한 날렌 은행의 1백75파운드수표가 부도되어 해당여행사로부터 지급독촉등으로물의,惹起 ▲80년8월 스웨덴거주 北傀공작원 (金영두)으로 하여금 덴마크대회 UN세계 女性회의에 참석중인 한국여성대표 拉致미수로 물의 ▲82년1월 北傀 外交部대표단 (단장 金형우 현外交部副部長)이 에콰도르에 入國하여 外交관계수립요구하다 거절당해 쫓겨남。

▲82년4월 北傀 平壤교예단이 泰國 차크리 王朝 2백주년기념행사(4·4~5·4) 공연차 체류중 방콕 라마가드즈 호텔 35개방에서 TV수상기철수,團員들의 휘입적 식사를 비롯 지나친 정치색의 공연으로 1차공연 거부당함。

▲82년4월 金日成의 70회생일 리셉션에 사용할 酒類를 스웨덴 외무성에 免稅구입을 요청했다가 구입량過多로 거절당함。

▲82년6월 파나마정부는 北傀외교관이라고 주장하는 北韓人5명이 極左단체단원과 비밀접촉시도하여 발각된후 反政府전복혐의로 이들을추방시킴。

▲82년7월 北傀의 對外무역은행이 싱가포르의마야무역회사와의 19만4천장의 아크릴모포수입계약협정위반으로 고소당함。

▲82년7월 駐쿠웨이트北傀통상대표부소속 沈회더이 1천2백여개시계가지고 카이로에 入國하다 적발됨。

波노동자 總罷業계획
그다니스크선 數千명 警察과 충돌

【그다니스크·바르샤바AP·UPI=聯合】 폴란드議會가 자유노조를 해체하고 새노조법을 채택한 가운데 자유노조 탄생지인 그다니스크에서는 12일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자유노조부활과 레흐·바웬사의 석방을 요구하며 연 이틀째 파업을 계속하는 가운데 폭동진압경찰과 치열한 시가충돌을 벌였다。

수천명의 레닌조선소노동자들은 이날 상오6시 (현지시간) 부터 파업에 들어갔으며 3시간후 수백명의 폭동진압 경찰이 장갑차와 살수차를 동원, 조선소주위를 봉쇄했다。

노동자들은 아침근무시간이 끝나는 이날하오2시 일단 파업상태를 끝냈으나 3시간뒤 그다니스크중심가에 위치한 공산당본부건물로 몰려 가려다 무장경찰과 충돌, 경찰은 시위노동자들에게 최루탄과 살수포를 쏘아댔다。

폴란드당국은 이틀간의 파업과 시위에서 1백43명의 노동자들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폴란드軍사법당국은 그다니스크전역에 긴장이 고조되자 레닌조선소를 군이관할하도록 조치, 파업을 사형에까지 처할수 있는 軍法위반으로 취급토록 했다。

폴란드국영TV는 일부 노동자들의 선동으로 조선소전체가 파업이 계속되고 작업이 마비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가 내려졌으며 따라서 조선소의 모든 노동관계업무는 계엄령의 적용을 받게될 것이라고밝혔다。

폴란드軍당국의 이같은 강경조치가 취해지기에앞서 일부 노동자들은 13일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조선소에서 나온 일부 노동자들은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홍콩紙서 보도
홍콩장래 住民투표로 決定
英·中共 예비會談결과따라

【홍콩AP=聯合】 홍콩의 장래에 관한 어떠한 처리방식도 현英·中共예비회담의 결과에 따라 홍콩주민의 투표에 의해 결정될지도 모른다고 홍콩의 한 중국어일간지가 12일 보도했다。

중도계의 東方日報는 이날 런던특파원發 보도에서 영국외무성이 홍콩의 장래에 관한 英·중공 공식협상에 앞서 현재 절차문제를 협의하고있는 예비회담을 지원하기위해 다음주 北京에 한 관리를 파견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共産圈대상 心理戰
브, 西方國을 비난

【모스크바聯=聯合】 소련최고회의간부회의의장겸 당서기장 브레즈네프는 12일 西方이 공산권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에 대비하기위해 소련청년층에게 공산주의 사조를 주입시키는 노력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브레즈네프는 이날세계전쟁에서의 이념투쟁및 노동자들의 정치교육강화를 위해 발트海의항구도시 탈린에서 열린 黨이론가회의에 보낸 메시지를통해 제국주의자들이 소련및여타 사회주의국가들에대해 사실상의 심리전으로 돌입했기 때문에 정치선전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프간 민간인 蘇軍들 大虐殺
카불郊外서 무차별 攻擊

【뉴델리UPI·AP=聯合】 아프가니스탄주둔 소련軍은 지난5일부터 약1주일간에걸쳐 수도 카불교외의 여러민간인 주거지에대해 전투기·탱크·야포및 로키트포등을 동원하여 무차별포격을 감행, 수많은 민간인과 회교저항군을 살육했다고 뉴델리의 西方외교관들이 12일 밝혔다。

이소식통들은 이같은 소련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특히 어린이와 부녀자들을 포함한 민간인사상자수가 엄청나게 컸다고 말하고 그러나 생존자들이 폐허의더미속에서 시체들을 발굴하고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사상자수를 추산할수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식통들은 소련군과 親蘇아프간정부군은 카불에서 북서쪽으로 15㎞떨어진 회교반군거점인 파그만을포함한 수개 읍과 촌락에 파상적인 공습을 퍼붓는 한편 맹렬한 야포와 탱크및 로키트포 공격을 가해 이들지역을 폐허의 천지로 만들었다고 밝히고 이같은 공격은 처음부터 회교반군들은 물론 민간들의 목숨까지 노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西方외교관들은 이같은 공격은 지난5일 약2백대의 소련군 탱크와 장갑차및 각종 야포적재차량들이 카불에서 파그만쪽으로 진격하면서 시작됐다고 밝히고 잇달아 미그전투기들과 무장 헬리콥터가 이 카불부교외지역을 맹렬히 공습했다고 말했다。

對西方문호開放
中共、계속 方針

【北京聯·AP=聯合】 趙紫陽중공수상은 12일 중공이 앞으로도 계속 對서방문호개방정책을 추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趙수상은 이날 서독·중공국교정상화 10주년을 기념하기위해 중공을 방문중인 카를·카르스텐스서독대통령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그와같이 밝혔다。

팔·요르단委 구성
아라파트·후세인간

【암만AP聯=聯合】 아라파트팔레스타인해방기구 (PLO)의장은 12일 그와 후세인 요르단왕이 요르단과 PLO간의 유대관계를강화키위해 팔레스타인·요르단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고발표했다。

지난9일 암만에도착한 아라파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와 후세인왕간의 회담이 적극적이고 건설적이며 성공적이었다고 강조하면서 그같이 말했다。

아라파트는 또 그와 후세인왕간의 3일간의 회담에서는 페즈아랍정상회담 결의문과 아랍측 평화안, 그리고 요르단 PLO관계가 논의됐으나 이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후세인왕의 요르단·팔레스타인연방창설안이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이 연방창설문제는 팔레스타인민족평의회 (팔레스타인망명의회)가 결정해야만 할것이라고말했다。

李文公、新聞協창립 20周기념식서

한국신문협회 창립 제20주년기념식이 13일상오 서울中區中林洞신문협회 강당에서 會員社대표들과 언론인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李振羲문공장관은 축사를통해 『오늘날 우리는 언론이 인간의 의식면에까지 파고드는 이른바 情報化사회에 살고있으며 과학기술의 비약적발전에 힘입은 정보媒體산업및 기술의 괄목할만한 혁신은 잠시도 멈출줄 모르고 있다』며 『정보사회의 눈부신발전속에서 우리신문계는 과연 전진적이며 능동적으로 이에 대처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자문자답해봐야 하리라고믿는다』고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우리신문계가 지금해야할일은 편집면에서는 自己克服을통한 土着的언론관의 확립이요 경영면에서는 전자매체의발전과 共存할수있는 신문매체의 재발견을 위한 대비와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10월16일~11월14일(일)
(한달간)
울며겨자먹기세일

극심한 생존경쟁을 뚫고 나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금번 해밀톤 서울식품을 OPEN 함과(10월15일) 동시에 1달동안 최대의 세일을 실시코자 하오니 적극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박인조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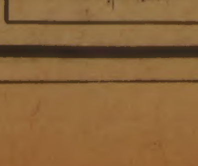
저희 식품점(서울 서부식품이나 해밀톤 서울식품)에서 100불이상 물건을 사실 경우에는, 30불 현금을 즉석에서 내어 드립니다. (특별원가제공품목은제외)

특별원가제공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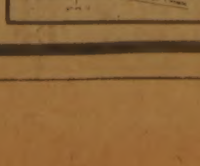
쌀, 배추, 무우, 불고기, 갈비, 조기, 오징어, 보리차, 감넬이차, 메주가루, 북어포, 엿기름가루, 한국산 자연굴 (인공생산이아님), 냉면 (2인분)

	Spe.	Reg.
⊙조기 1 BOX(중, 대)	$48.95	$52.50
⊙물오징어 1 BOX 22 Lb. (대)	$22.95	$23.95

배 추 5 BOX 사실 경우 (1 BOX Free)
무 5 푸대 (1 푸대 Free)
● 시너집에서 묶어서 구입가능 합니다.
● 배추, 무우 5 BOX 사시는 분께 굴 1~2Lb. 선착순으로 드립니다.



서부·서울식품
1391 WESTON RD.
☎ : 243 9544



해밀톤·서울식품
128 BRUCEDALE AVE. E.
☎ : 1 385 1485

OB、감격의 優勝

金裕東 9회 그림같은 만루홈런

코리안시리즈 三星에 4승1무1패

朴哲淳 의지의 力投…失投한 李善熙 무릎꿇고 눈물

朴哲淳의 "만세"

◇「우승의 감격」을 들어 올리는 OB 에이스 朴哲淳。경기가 끝난 순간 마운드에 무릎을 꿇고 만세를 부르고 있다。

시즌내내 침묵했던 강타자 金裕東이 OB베어스에 프로야구 첫해 우승을 안겨주었다。

12일밤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코리안 시리즈 6차전서 OB베어스의 5번 金裕東은 9회초 三星라이온즈의 좌완 李善熙의 초구를 강타, 코리안시리즈 첫 만루홈런으로 8-3으로 승리, 4승1무1패로 우승을 확정지었다。金裕東은 이날 2회초에도 추격의 발판이된 연속게임 좌월솔로호머를 날리는등 코리안시리즈 6차전 통산25타수 10안타 12타점의 수훈을 세워 최우수선수로 선정되어 승용차 한대를 부상으로 받았다。

프로개막 첫해에 전기우승에 이어 코리안 시리즈를 제패한 OB나인들은 요란한 축포속에 대형우승 트로피와 우승페넌트를 들고 그라운드를 돌며 2만여 관중의 환호에 답했다。

OB의 우완에이스 朴哲淳은 허리부상을 무릅쓰고 분투、9회동안 38타자를 8안타 3사사구 7삼진 3실점 3자책점으로 선방했다。만루홈런을 맞은 三星패전투수 李善熙는 9회초 수비를 끝낸후 그라운드 한구석에 주저앉아 눈물을흘리며 失投의 아픔을 달랬다。너무나 대조적인 승자와 패자의 모습이었다。

◇제6차전

	1	2	3	4	5	6	7	8	9	계
OB(4승1무1패)	0	1	1	0	1	0	0	0	5	8
삼성(1승1무4패)	2	0	1	0	0	0	0	0	0	3

▲홈런=金裕東 (2회·9회만루·OB)
▲코리안시리즈 최우수선수=金裕東 (OB좌익수)

OB우승을 굳힌 金裕東。세계아마야구선수권대회 韓·日戰서 韓大化가 터뜨렸던 3점홈런의 감격을 되살린 한밤의 드라마였다。

OB는 마지막 승리를 굳히기위해 22연승의주인공 朴哲淳을、三星은 역전우승을 위한 배수의 진으로 후기 우승의 주역 좌완 李善熙를 선발로 기용。그러나 朴哲淳은 허리부상으로、李善熙는 연투의 피로로 난조를 보였다。

OB는 1회초 선두 尹東均이 李善熙의 초구를기습、우전에 첫 안타를 날렸으나 2사인미스로 어처구니없이 2루로 달리다 횡사、선제득점 기회를 놓쳤다。

三星은 첫 고비를 손쉽게 넘기고 李萬洙의 [illegible] 적시타로 선제리드를잡아나갔다。

OB 朴哲淳이 三星 첫타자 張泰洙를 3개의 볼로 삼진시킨후 타석에들어선 2번 裵大雄은 朴哲淳의 초구직구를 날카롭게 받아서 행운의 파랑새존을 비운듯 맞추는 30만원짜리 2루타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3번 鄭鉉發이 2루내야안타로、4번咸學洙가 포볼로1死만루를 이룬다음 5번李萬洙가 좌중간을 [illegible] 보다시 파랑새 존으로 선제2타점 2루타를 날렸다。

1회말 위기를 2실점으로 수습한 OB는 코리안시리즈 최고타전의 강타자 金裕東의 2연속게임 솔로홈런으로 추격에 나섰다。

2회초 선두로 나온 5번 金裕東은 李善熙의 초구를강타、좌월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3회초에는 중전안타로 나간 尹東均을 2루에 두고 2死후 3번 金宇烈이 중전 [illegible]타를 날렸다。

중심타자의 뒤처진 [illegible] 만큼 부진에 빠져있던 [illegible]의 李萬洙는 3회말 1死2루에서 또다시 좌중간 적시 득점타를 날림으로써 三星에 3-2의리드를안겨주었다。

그러나 三星은 3회말 공격에서 선두 3번 鄭鉉發이 중전안타로 나가 4번 咸學洙의 우전안타로 3루까지 달리다 태그 아웃당하는 바람에 연속 3안타로 1득점에 그치는불운을 씹었다。

OB역시 세차례나 주자를 진루시키고 5회초2개의 포볼과 보내기 번트로만든 2死1·2루에서 金裕東의 [illegible] 간신히3-3으로 따라붙었다。

[illegible]

최우수選手 OB 金裕東

스타

남몰래 배팅연습 "優勝기여에 보람"

별명은 너재비。[illegible] 하고 마음속에 새겼다는뜻이다。반년간 그라운드를 떠났던 그가 프로선수로 데뷔하면서 팬들은 그의 재기에 의구심마저 품었다。

전후기 시즌을 통틀어 1백55타수38안타·타점31·홈런6개·타율2할4푼5리。金裕東의 방망이도 [illegible] 시즌내내 침묵했다。

OB의 코리안시리즈 패권을 결정지은 6차전 만루홈런을 터뜨린 金은 비로소 입을 열고 기쁨에 넘친 함박웃음을 웃었다。

『몇달을 쉬고 나와서 너무 잘해야겠다는 압박감때문에 더욱 안되었다。』

이결과 코리안시리즈서는 25타수10안타 (타율4할)、12최고타점、홈런3개로 가장 빛나는 활약을 보였다。

金은 승리의 만루홈런이 [illegible]

『[illegible]의 우승에 기여해 보람을 느낀다』전기 시즌서의 부진으로 그는 남의눈을 속여가며 피눈물나는 배팅연습을 계속했다。

[illegible] 다。배트의 감각으로 홈런인 줄 직감했다』고 말했다。서울 출생、서울 大門中·商을 거쳐 漢陽大、韓國化粧品에서 아마선수로 활약、[illegible]상을 받았으며 4년간 국가대표로 뛰기도 했다。77년 7월15일 결혼、[illegible] 부인 [illegible]씨와의 사이에 [illegible] 군(5)을 두고있다。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戰後세계와人物

激動35년…「史의 主役」들을 본다

<1>

2차대전후 격동의 세계사에 리처드·닉슨처럼 榮辱의 落差가 극심하고 논란이 많았던 인물도 별로 없었던것 같다。美부통령8년、대통령6년반을 지낸 그는 권력의 頂上에서 포효하는 사자가 되었다가 끝내는 정치적 極刑에 해당하는 탄핵직전에 백악관을 떠나 광야에 팽개쳐진 病弱한 야수꼴이 되기도 했다。그런 닉슨이 지난35년간 자기가 대하고 겪투를 겨뤄온 전후 세계사의 주역들의 이야기를 일화와 함께 최근저「지도자들」속에 엮어놓고 있다。그속에서 닉슨은 자신이 잘 알았다고 실토한 스탈린만 빼놓고 80여개국 지도자들을 다루었다。그가 넓고 깊은 안목으로 내다본 처칠、드골、맥아더、周恩來등 사라진 거성에 이어 현존하는 지도자들의 면모를 요약해서 소개한다。【뉴욕=金泰雄특파원】

◇1954년 미국방문에 나선 윈스턴·처칠수상이 닉슨부통령(오른쪽)과함께 공항에서 백악관으로 오면서 군중의 환호에 답하고있다。

윈스턴·처칠

운명에 대한 信念이 靈感불러

유머와 機智의 話術로 언제나 座中을 壓倒

윈스턴·처칠卿은 정열의 친구와 삶의 의미에 관해 논의한 적이 있다。그의 사상은 철학적이면서도 순진했다。

처칠은『우린 모두 벌레들이야』고 말하고 나서『하지만 나는 그중에서 희미하나마 빛을 내는 개똥벌레란 말이야』라고 했다。

처칠은 자기 운명에 대한 이런不動의 신념에따라 일생의 방향을 잡아갔다。그 신념은 자신을 격려하게도 만들었고 영감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그는 한번 마음 먹으면『안된다 (No)』란 말을 까맣게 잊은 사람같았다。그는 전쟁이나 선거전에서도『패배』란 단어를 어휘에서 철저히 지워버렸다。

내가 처음 처칠을 만난것은 그가 수상으로서 워싱턴을 공식 방문한 54년 6월、공항영접 때였다。당시 부통령으로 영접을 나갔던 나는 아직도 처칠이 탄 비행기가 눈에 들어왔을 때의 영광과 흥분을 기억한다。나는 많은 외국 지도자、저명인사를 만났지만 처칠과는 비교가 되질 않았다。2차대전중 나는 루스벨트 대통령보다도 처칠의 연설에 더 감동받을 정도였다。

나는 전날밤 92층의 환영연설문을 준비하느라고 1시간을 소비했다。처칠의 비행기가 나타났을때 재빨리 마음속으로 연설문을 훑었다。

[illegible] 처칠이 램프 꼭대기로 홀로 나타났다。그가 그렇게 작은지는 몰랐다。아마 어깨가 처져있었고 목이 전혀 없어 그 큰 머리를 몸체위에 올려 놓은것같이 보였기때문일것이다。처칠은도움을 거부하고 혼자 금장의스틱을짚으며 램프를 내려왔으나 지병인 고혈압때문인지 걸음걸이가 불안했다。많은 영국사람들이 그렇듯 처칠의 악수는 힘이 없었다。

처칠은 내가 환영사를 할 여유를 주지않고 그의 도착성명을 해버렸다。

그는『아버지나라로부터 어머니나라 (그의 어머니는 미국서 살았다)에 와서기쁘다』고 했다。

그는 유명한 승리의 V자표시를 해보이며 백악관으로 향하는 검은 링컨세단에 올랐다。

우리는차중에서 인도차이나사태、핵무기문제등에 관해 여러가지대화를 주고 받았다。처칠은 나를 뒤돌아보며『세계는 매우 위험스러운상황에 처해있어요。우리양국민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긴요해요。우리는서로다른점을 지니고 있어요。당연하지요。불가피하구요。언론은 작은 것을 크게 보이게하고 있어요』라고 평범하지만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그는 나를 통해 두달전 아더·래드포드제독이 런던을 방문、서로 마찰을 빚은 양국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의사를 행정부에 전하고있음이 분명했다。

당시 래드포드제독은 처칠수상에게 인도차이나를 공산세력으로부터 방위하기위해 프랑스를 도와줄것을 강조했다。

이때 처칠은 영국이 인도를 지키기위해서도 싸우지않는데 왜 영국이 프랑스가 인도차이나를 지키는 것을 위해 싸워야하느냐고 심통스럽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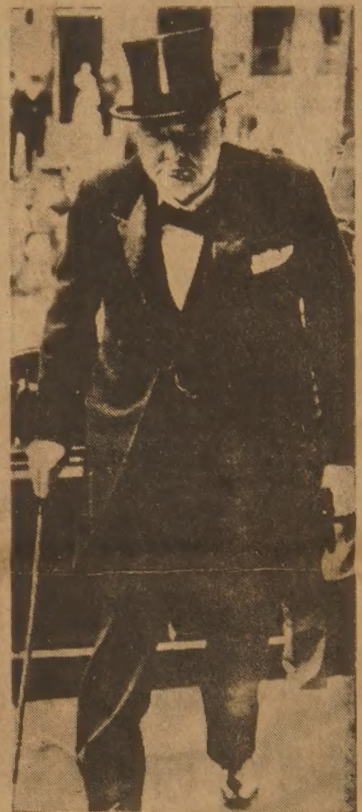
나는 백악관에 가까이 다다랐을때 연합군이 노르망디상륙보다는유럽남부의「연한 下腹部」에 총공세를 취해야한다고했던 그의 주장이 실행됐을경우 어떻게 되었을것인가하고 물었다。처칠은『그럼 우리는 빈을 손아귀에 넣을수 있었을 것』이라고 조용히 언급했다。

처칠은 자주 지병때문에 고통스러움을 느꼈지만 일단 무대에 올라서면 아무도 그의 약함을 눈치채지 못하게 행동했다。

꽉짜여진 訪美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처칠은 길고 지리한 만찬을 세계문제등 무거운 토론에서 사소한 잡담에 이르기까지 종횡무진으로 유머넘치는 화려한 화술을 구사했다。

전쟁때도 그랬고 언제나 오후에 잠깐 낮잠을 자는 버릇때문에 항상 저녁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나갔다。

만찬도중 처칠은 그의 과거얘기로 좌중의 대화를 압도했다。그는 결코 무례를 범하지 않았다。맥아더장군처럼 처칠도 혼자 떠벌이지만 하도 재미있어 아무도 불쾌해하지 않았다。그는 아이젠하워 대통령부인도 보어전쟁의 극적인 무용담으로 사로잡았다。



◇오랜친구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런던성바오로성당에 들어서는 윈스턴·처칠수상(1954년)。

나는 이멋진 손님을 대통령이 참석하지않은 가운데 다시한번 대할 기회를 맞았다。영국대사관에서 베푼 스태그·디너 (남자만의 만찬)에서였다。

그는 역사의 창조자로서뿐아니라 저술가로서 탁월한 솜씨를 발휘했다。

처칠이 직접 관련되지도 않았던

사흘接觸하고도「世紀의지도자」實感

「제1차대전사」는 그의「2차대전사」보다 더욱 훌륭한것이 이를 입증하고있다。

처칠은 덜레스국무장관을『도자기 변기를 들고다니는 바보일뿐』이라고 묘사했다。

또 당시 의회의 유일한 여성의원이었던 래디·에스터여사가 처칠에게『내가 당신부인이라면 코피에 독약을 넣겠다』고 말하자『내가 당신 남편이라면 그코피를 먹어치우겠다』고 응수하는 유머의 진수를 보여주기도했다。

처칠이 미국을 방문하는동안 나는『골동품 습관』에 관해 말하는 가운데 타자기가 제일좋다고 하자 그는『차갑고 비인간적인 기계보다는 아리따운 비서아가씨가 받아쓰는것을 더 좋아한다』고 웃으며 말했다。그러면서 자신은「아주 멋진」비서아가씨2명을 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후 수년이 지난후 72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소정상회담때 나는 브레즈네프서기장에게 이야기를 자세하게 전했다。

이때 브레즈네프는 자신도 타자기보다는 비서가 좋다는 처칠에 동감이라는 견해를 표시했다。

그렇지만 처칠은 운명의 이기없이 어떤일을 하기를 꺼렸다。전쟁통에도 그는 전선까지 몇권의 책을 가지고 다녔다。

69년 내가 대통령에 취임한직후 백악관의 고참수다꾼들은 한사건에 관해 나에게 털어놨다。

루스벨트대통령이 언젠가 처칠의 방미기간중 그에게 백악관의 링컨침실 (퀸침실이 더욱 훌륭함)에묵도록했다。

그런데 처칠은 침실에 들어간지 30분도 못되어 구식잠옷을 입은채로 서류가방을 들고 소리가 나지않게 발을들고 링컨침실에서 홀을 지나 퀸침실로 가더라고 수다꾼들은 전했다。

처칠의 3일간의 방문기간중 나는 그가 20세기의 위대한 지도자임을 가까이서 보았다。

합의서

온타리오 실업인협회와 가칭 "한인상공인협회"는 명랑한 한인사회의 분위기구축과 좀더 건전한 한인사회의 발전을 기한다는 대전제 아래 모임을 갖고 협의한 결과 잠시나마 교민사회에 걱정을 끼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기에 이를 알리는 바입니다.

—아 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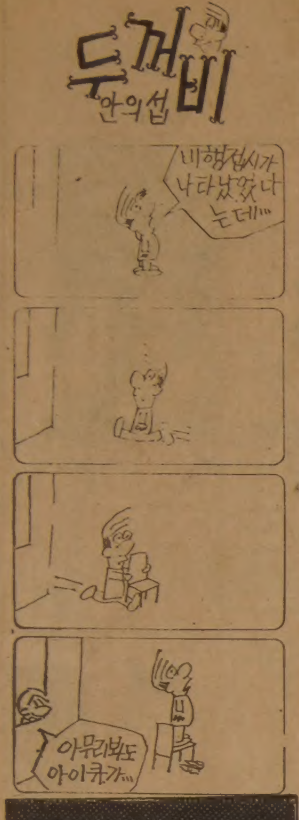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와 가칭 "한인상공인협회"는 공동관심사를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의 기치하에서 서로 협의하며, 단결하여 나갈 것을 정중히 합의한다.

1982년 10월 15일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회장 차 선 겸

가칭 한인상공인협회발기위원회 위원장 김 완 수

입회증인 김 현 모



보호망없는 高壓線 感電피해
"韓電에 50% 賠償의무"
大邱高法 "피해자도 책임있다"

【大邱】보호망이 없는 고압선에 감전, 신체에 손상을입었을경우 안전시설을 하지않은 한전측이 50%의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주섭부장판사)는 13일 경남梁山郡機張面蓮花里371 이종만씨일가족5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 한전측은 원고이씨등 일가족에게 손해배상액 7천7백96만9천원중 3천8백9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한전측이 고압선을 설치한후 보호망및 주의표시등 전기공작물로서의 설치보존을 소홀히해 재해가 발생했을경우 손해배상의책임을 면할수 없다고말하고 원고도 성인으로서 고압선이 있는곳에서 TV안테나를설치할때 감전에대한 주의를 해야하는데도 이를태만이해 사고를 냈음으로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원고 이씨는 지난 80년 12월22일 하오4시께 자기집옥상에서 높이 2.5m의 철봉형 TV안테나를 설치하다가 옥상3m위로 지나가는 2만2천9백볼트의 고압선에 안테나가 부딪치면서 감전, 반신불수가돼 지난81년2월 한전측을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鄭】

1종醫保 심사·지불 一元化

보사부는 1종의료보험의 진료비심사와 지불체제를 일원화하기위해 의료보험공단(공무원·교사조합)의 심사, 지불업무를 의료보험 조합연합회 (일반근로자조합)에 위탁키로 했다.

13일 보사부가 확정한 의료보험관리운영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공단과 연합회의 진료비심사기준을 통일하고 진료비지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불편을해소하기위해 연합회측의 심사기능을 전산화해서 공단의 심사, 지불업무를 흡수통합키로 했다는 것이다.

보사부당국자는 이를위해 진료비심사업무 통합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설치, 세부계획이 확정되는대로 빠른시일내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종보험은 심사와지급이 2원화돼있어 병의원의 진료비청구절차가 복잡하고 운영관리비의 과다지출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중견 사립교敎師 公立校 특별임용

【大邱】대구시교위는 13일 사학교사들의 사기를 높여주기위해 사립교 교사중 교육경험이 많고 교과지도방법이 뛰어나며 연구실적이 두드러진 40세부터 50세초반까지의 중견교사 20명을 선발, 공립학교에 특별임용할것이라고 밝혔다. 【鄭】

電氣料추징금 시비
한전長項지점·邑사무소와

【長項】忠南舒川郡長項邑주민 2만여명에게 상수도를공급하는 長項양수장의 전기료추징금 7백여만원 납부문제를 둘러싸고『내라』는 한전측과『못내겠다』는 長項읍사무소측의 주장이 팽팽히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전長項지점(지점장 文漢洙)은 지난6월22일자로 長項양수장 관리자인 長項읍사무소에 대해『지난 1년동안 長項양수장의 전압조정기가 고장을 일으켜 그간의 전기사용량중 33.3%가 적게 잘못 계량됐다』며『7백6만4천6백95원의 추징금을 10월10일까지 납부토록하라』고 통보했다.

이에대해 읍사무소측은『1년간의 계기고장으로 전기료가 제대로 계산되지 않았다면 매월의 계량기검침시에즉각 통보되지 않고 1년이 지나서야 추징금을 일괄징수하겠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일』이라고 주장, 추징금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鄭】

新任총장 沈泰植교수 選任
慶熙大, 문교부에 承認요청

慶熙大는 13일 재단이사회를열어 12일 제출된 安致烈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沈泰植법대교수(60·사진)를 선임, 문교부에 승인요청했다.

신임 沈총장은 서울대법대를 졸업, 東國大 서울대 延大를 거쳐 지난70년부터 78년까지 慶熙大법대 학장을역임했다.

한편 慶熙大는 이날 이번사태와 관련, 무기정학 8명 유기정학 4명등 모두 12명의 학생을 처벌했다.

文化院설립을 건의
太白商議 市에

【太白】太白상공회의소(회장 李佶鍾)는 오는 16, 17일 양일간에 걸쳐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太白祭를 계기로 문화원 설립을 시에 건의키로 했다. 【鄭】

"閔妃는 銃에의해 弑害됐다"
高宗典醫 에비슨이쓴 英文기록發見

【大邱】구한말 비운의 왕후 閔妃가 칼이 아닌 총에의해 시해됐다는 새로운 궁중기록문이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종황제의 전의였던 벽안의 선교의사 올리버·R·에비슨이 쓴 이 영문기록문은「시해전날 이미 일본인 궁녀들이 궁중으로 잠입했었다」고 기록하는등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수록하고있어 근대사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것으로 보인다.

이기록문은 大邱大 李泰榮총장이 10월초순 大邱시와자매결연을맺은 미국의 아틀랜타시를 방문, 에비슨의 유일한 직계손녀 크로우포드부인을 만나 이같은 자료를 간직하고있다는 사실을듣고 원본을복사, 귀국후 검토한 결과 밝혀졌다.

에비슨은 閔妃시해사건에 대해 『밤이 갑자기 궁내가 떠들썩했고 이어 그녀를 찾아내듯 사람소리가 났고 자객들은 총을 쏘았다. 이때가 자정으로서 총소리에 처와 나는 놀라움을 금치못했다. 이튿날 민비가 죽었다는 소문을듣고 나는 황급히달려갔다』고 기록하고있다.

에비슨은 이 기록문서에서 『미우라 공사가 우리나라에 파견됐을때 이미 시해임무를 띠고왔으며 이러한 참변이 일어난후 50여일만에 숲속에서 閔妃의 불에타 재로변한 시신과 옷자락이 발견되었다』고 적어놓았다.

타이프용지에 약 20만단어를 수록하고있는 이 기록문은 모두 6백75매로서 방대한 분량으로 서문과 본문으로 나뉘어져있다. 【鄭】

◇공해업소인 주택가 연탄공장을 이전하라고 농성하는 인근주민들을 공장측이 폭행하는등 강제로 해산, 말썽을 빚었다.

연탄공장 移轉요구 主婦들에
工場종업원들 行悖

주택가에있는 연탄공장공해업소를 이전해달라고 주장하며 농성하는 주부들을 공장종업원들이 폭행, 소동을빚었다.

13일 상오10시께 서울麻浦區新水洞주민1백여명은 인근에있는 東原연탄 新村공장(공장장 李在文·48)에 몰려가『일년내내 날아드는 탄가루때문에 살수없다』며 공장을 이전해줄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주민들은 금년초 구 대명연탄을 인수한 東原연탄이 생산시설을 하루 30만장에서 60만장규모로 확대하고도 집진시설이나 방진시설은 전혀 하지않아 탄가루가 날아와 여름에도 문을 열어놓을수없고 많은 어린이들이 기관지 천식을앓고있다고주장했다.

주민들은 또『연탄가루 때문에 밖에다 빨래를 널수도 없다』면서 공장과 담을같이 하고있는 주택의경우에는 새벽2시까지 가동하는 모터소리에 잠을 설칠뿐아니라 셋방을 놓으려고해도 들어오는 사람이없어 재산상 손해까지 입고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이같은 농성에대해 공장측은 주민들을 강제로 몰아내 폭행을 하기도 했는데 金映惠씨(32·여·新水洞93의56)는 종업원 3명에게 골목길로 끌려가 팔을 비틀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한 주부는 종업원들이 휘두른 방망이에 머리를 맞아 크게 다쳤다.

또 공장측은 주부들을 강제로 몰아내려다 뜻대로 되지않자 연탄을 실어나르는 트럭운전사들을 동원, 7대의 트럭을 몰고나와 밀어내는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名人戰 第4局열려

【東京13日=宋孝彬특파원】제7기名人戰도전7번기중 제4국의 첫날대국이 13일 日本德山에서 시작됐다. 지금까지 3연승을 기록, 남은4판중 한판만 이기면 타이틀을 지키게되는 趙治勳名人은 白을 들고 도전자 오오다께(大竹英雄)碁聖과 열전을 벌이고 있는데 승패는 14일 하오에야 판가름날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刊行된 새圖書 보물指定

8만대장경에도 포함돼있지않는 고려시대의 간행도서 文殊師利菩薩最上乘無生戒經이 通度寺 경전더미속에 섞여있다가 6백년만에 발견돼 빛을보게됐다.

13일 문화재위원회는 通度寺소장 희귀본인 文殊사리경문을 비롯, 潭陽龍華寺소장 佛祖歷代通載및 高曉宗中 유물등 3건을 보물로 지정키로 의결했다.

文殊師利菩薩最上乘無生戒經은 인도의 指空스님(?~1363년)이 금강산 法起보살도장을 참배했을때 고려忠肅王과 신하들에게 외어서 지키도록 했던 경문.

그후 1353년에 책으로 발간됐다가 30년후에 다시중단된것으로 牧隱 李穡(1328~96년)의 跋文이 실려있어 서지학상 매우 가치가 높은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5行뉴스

◆술취해철로베고자다轢死

【大邱】12일밤 11시께 大邱시東區檢沙洞앞 대구선 철로에서 이동네 김성옥씨(32·택시운전사)가 술에취해 철로를 베고자다 大邱기관차사무소소속 제5707호 화물열차(기관사 유종보·31)에 치여 숨졌다. 【鄭】

嫌疑는 재빨리 入力
결백 뒷처리는 늑장
컴퓨터身元조회「無用」
部署간 通報과정서 걸려
설비는 現代化、체제는 舊態

무혐의 결정을 받았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 경미한 벌금을낸 시민들이 신원조회때마다 애를태운다. 신원조회와 각종 범죄수사자료를 모두 한데모아 기억시키고있는 경찰의 감식용컴퓨터에 사건의 종국처리결과가 뒤늦게 입력되는일이 많아 신원조회가급한 당사자들이 손수 해당기관을 뛰어다니며 「무고」하다는 증명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관계시민들뿐 아니라 컴퓨터의 범죄자료를 사용하는 각급수사기관도 불편한때가 잦다. 모처럼 컴퓨터시대에 들어왔으면서도 우수하고 간편한 기계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것은 법원-경찰서-치안본부 감식과로 이어지는 통보체제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치안본부 전자계산소에 비치돼있는 이감식용 컴퓨터에는 경미한 행정사범, 교통법규 위반사범에서 강력지능범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각종 과실범이나 범법자들의 전과와 범죄사실이 수록되는데 형사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은 즉시수록되나 검찰이나 법원에가서 무혐의나 무죄로 끝난 종국처리 결과는 통보가늦어 자연히 입력이 1~2년씩 늦어지는 경우까지 발생, 많은 대상자들이 그기간중 억울하게 범법자로 낙인찍히게 마련이다. 심지어는 형의 실효기간이 지난 사람들의 전과기록까지 말소가되지않고있어 건전한 사회복귀를 방해하는 결과도 빚는다.

해외 취업자나 해외 여행자들의 경우에는 특히 피해가 심한데 출국시간에 쫓기는 이들은 당사자가 직접 경찰서와 검찰청을 뛰어다니며 묵은기록을 뒤져내 종국처분결과를 얻어내 이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당한다.

경찰에서 입건됐다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사건이나 법원의 판결 결과는 치안본부감식과에 통보돼 컴퓨터에 입력되게돼있는데 법원에서 검찰, 검찰에서 해당경찰서, 해당경찰서에서 치안본부로 사건처리결과를 보내는 과정에서 일손이 모자라는등의 이유로 통보가 늦어지고 있고 경우에따라 처분내용이 누락되거나 잘못 표기되는수도 많아 입력이 자연히 지연되고있는 실정.

이러한 「늑장입력」은 현행지문규정이 경찰이 감식반에 결과를 통보해야할 의무는있으나 그기간을 정하고있지않는데도 원인이있다.

崔모씨(38·서울東大門區面牧1洞97의48)는 70년에 운전면허를 받은 무사고운전사로 3년이상 무사고운전이면 모범운전사자격을 얻을수 있는데 64년에 특수절도혐의로 징역8개월을 받은것이 형의실효에 관한 법률에의해 말소되지않고 기록되어있어 이를 얻지못했다고 호소하고있다.

범법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마련된 형의 실효에 관한법률에는「징역·금고등은 형집행후 10년이면 전과를 말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 崔씨의경우 74년부로 기록이 지워졌어야 한는것.

81년에 노동자들에게 해외취업사기혐의로 고발을 당했다가 불기소처분을받은 金道昌씨(31·노동·서울江東區遁村洞)는 같은해 사우디에 취업키위해 출국수속중 신원조회에서 「사기죄 처분결과 미상」이 나와 약 1주일동안 검찰사건과에 가서 기록을뒤져 「처분결과확인서」를 받고나서야 출국수속을 할수있었다.

회사원 朴모씨(43)의 경우에는 병역법위반이 불기소로 끝났으나 컴퓨터에 입력이 채안돼있어 본인이 서울지검에 몇차례나 가서 사건기록을 찾고 그 처분결과를 확인, 해외여행을 할수 있었다.

경찰이 「처분결과 미상」을 유죄로 판단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많다.

얼마전 서울 모 경찰서에 상습도박 피의자로 입건된 朴昌雨씨(31·노동·서울東大門區 忘憂洞465의16)의 경우 80·81년도 상습도박, 81년도 도박개장 혐의에 「처분결과 미상」이지만 이를 경찰은 유죄로보고 「전과가 있는놈이 범죄를 시인않는다」고 마구 때리기도 했다.

이에대해 일선경찰관들은 정기적으로 컴퓨터의 자료중 형실효가 완성된 케이스를정리, 전과를 말소시켜주고 사건기록카드는 법원의 판결이 난뒤에 빠른시일내에 통보받아 입력시키는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범인도 아닌 용의자에게 지문을 채취한다든가 하는 인권침해를 피하고 국가예산도 절약해야한다고 지적하고있다.

실제로 서울 泰陵경찰서의 경우 기소사건대 불기소사건의 비율은 3대7로 불기소사건이 2배가넘게 많은데 실무자들은 기소사건만 카드를 작성하는것도 행정간소화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경우 한장에 12원하는 수사자료카드를 아껴 경비를 절감할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徐華淑기자】

賂物주고공갈… 돈뜯어
근무하던 會社 "非理폭로" 협박

서울시경은 13일 朴鍾浩씨(50·서울東大門區中和1洞312의15)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및 공갈등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철도청주사 金鎭吉씨(41)를 뇌물수수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朴씨는 韓美토건(서울東大門區踏十里洞492)의 토목기사로 있을때인 지난80년 1월15일께 서울지방철도청에서 발주한 충북鳳陽역 선로횡단박스설치공사(도급액 6천4백만원)를 도급받게 해달라면서 철도청 직원인 金씨에게 3백만원의 뇌물을 주었는데 이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자『정부 5개부처에 진정서를 내겠다』고 공갈, 돈을 나눠가진 철도청공무과주임 白모씨로부터 4백23만원을 도로 받아냈다는 것이다.

朴씨는 또 지난 8월25일 자신이 근무하던 국토건설산업(경기安養市安養1洞)사장 宋모씨에게『공사관계로 1천4백만원의 빚을 졌는데 이빚을 갚아주지 않으면 회사비리를 당국에 알려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 2차례에 걸쳐 8백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있다.

가정집불 2명燒死
어제새벽 光州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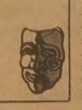
【光州】13일 새벽 1시께 光州市西區月山3洞291의31 鄭良明씨(50)집에서 원인모를 불이나 옆방에세들어 사는 尹永玉씨(32)와 尹씨의아들 京完군(6)등 2명이 불에타숨지고 鄭씨가 행방불명됐다.

鄭씨의부인金貞順여인(50)에 따르면 밤 10시께 남편鄭씨와 안방에서 말다툼을한뒤 12시께 옆방으로 건너가 잠을 자려고하는데 밖에서 『불이야』하는 소리가 들려 뛰어나가보니 남편鄭씨가 혼자서 자고있던 안방에서 불길이 솟으면서 집전체에 번졌다는 것.

경찰은 鄭씨가 부부싸움을한뒤 화가 치밀어 방화한 것이 아닌가보고 정확한원인을 조사중이다. 【聯】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단골傍聽客
國會열리면 汝矣島찾는 鄭昊燦씨
3년째 출근… 이젠 반쯤 「정치평론가」



議政府市 議政府4洞에 사는 鄭昊燦씨(61·사진)는 국회본회의가 열리는날은 신바람이 난다. 특히 의원들의 대정부질문이라도 있는날은 더욱 그렇다. 마치 자신이 대정부질문을하는 국회의원이라도 되는양 거의매일 국회로 「출근(?)」하다시피한다. 금년 정기국회에 들어서도 4일부터 13일까지 무려여섯차례나 국회방청석을 찾았다. 이때문에 국회본회의장 방청석담당직원들은 鄭씨를 「감초」 또는 「골수」라 부른다.

鄭씨는 3년간 방청석출근을한자신은 의원들이 자기발언이 있을때 인기때문에 동원하는 지역구주민이나 가족및 친척등의 「철새방청객」과는 격이다르다는 긍지를지니고있다. 토목관계사업을 하다 실패한후 국가의 영세민정책에 관심을 갖고 국회나들이를 시작했지만 이젠 「정치평론가」가 다됐다.

鄭씨의 방청자세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다. 회의가 길어지면 의원들이 슬슬 의석을 뜨거나 졸게마련이지만 鄭씨는 그 반대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신경을 더 곤두세운다.

국민이 가려워하는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질문이 나오면 그의얼굴은 기상도나 되는듯 밝아지고, 두루뭉수리한 질문이나 인기끌기노린 날림질문에 「노력해보겠다」·「시정하겠다」는 식의 어리벙벙한 답변이 반복되면 그의 얼굴엔 분노의 기색이 숨김없이 드러난다.

「알맹이」없는 질문과 「장군멍군」식 답변을 들어오는동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정의 흐름을 지켜봐야겠다는 의식이 싹텄다는게 鄭씨의 고백. 그래서 의원들의 대정부질의가 있을 때는 질문을 할의원을 찾아가『어떤 내용을 질문해주었으면좋겠다』는 뜻을전할때도있다.

12일에도 동절기 영세민 취로사업에 대해 질문해줄것을 부탁, 金正禮 보사부장관의 답변을 들었다며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면 국회는 얼마든지 알찬 방향으로 이끌수 있다는것이 그의 소박한 정치관.

『물론 「정치부재다」, 「정치활성화다」하는 논쟁도 중요하지요. 아슬아슬한 발언도 들어왔어요. 그러나 정치인은 무엇보다 먼저 국민의 공복이 될때 비로소 소신있는 정치를 할수있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합니다』고 퉁명스럽게 말을 끊는다. 【鄭在龍기자】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SINCE 1909~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셰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FINCH / LEON'S / MCLEVIN / SHEPPARD / MARKHAM / HWY. 401

또다시 지독한 캐나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If you're thinking about moving to Florida in ten years, now's the time to start thinking.

Although no one can really predict what will be ten years from now, one thing's a certainty: Every year, inflation makes your Florida move a lot more expensive.

That's why we suggest you consider making your first move toward the future as soon as possible. By considering buying a General Development homesite today—at our current prices and terms. Instead of tomorrow's.

To help you look into the possibilities of this excellent hedge against inflation, General Development has prepared a comprehensive Property Information Kit about its communities as well as Florida in general.

It will answer many of the questions you might have on why to buy, where to buy and how to buy wisely. In short, it'll start you thinking. Now. Mail coupon today or call:

Can-Am Real Estate Ltd.
Real Estate Broker
Attn: Mr. Ben H. Chung
452 Lake St,
St. Catharines, Ont. L2N 4H4
Authorized Ontario Representative for General Development

Please Rush us our Property Information Kit. We understand there's no cost or obligation to purchase.

Name
Address
City/Province/Code
Telephone Number

☎ : 661-1625
Toronto office
혹은
Collect call
(1)-935-7175(B)
935-2325(R)

정번헌

저를 아끼시는 뭇어른·친지여러분 그동안도 안녕하시온지요. 외국부동산광고 규제법에 의해 상기부분을 영어로 알려 드림을 이해 하시기 바라오며 이번에 여러가지 좋은 조건으로 미래의 「후로리다」집 또는 집터를 손쉽게 장만하실 기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터이니 원하시면 제게전화나 편지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정번헌 배상

맛사지

DIXIE HEALTH STUDIO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장의사〉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개업인사

한인교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가 블루어상가 (한국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에 변호사 사무실을 OPEN하여 한인교포여러분들을 성심 성의껏 봉사코자 하오니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코저 한인 여사원이 수고하고 있읍니다.

RALPH M. LEVINE B.A.
변호사 (BARRISTER AND SOLICITOR)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 : 533—8539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KBS 공상과학물 「흙과인간」 大賞에
ABU라디오부문

KBS제1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흙과 인간」(변광수연출)이 제18회 아시아·태평양지역 방송연맹(ABU) 라디오부문 대상을 받았다.

「흙과 인간」은 국내외토양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2백년후의 문제를 현재와 비교, 앞으로 다가올수 있는 문제를 제기한 공상과학드라마. 상상할수 없는 흙의 소리(울음소리)를 효과로처리, 다채로운 분위기를 살리게 특징이다.

西獨 綜合1위
유럽 태권도選手權

【로마=聯合】 제4회 전유럽 태권도선수권대회가 유럽연맹(회장 하인스·막스, 독일) 후원 이탈리아협회(회장 박선재) 주최로 최근 로마市 파라세토·델로·스포츠실내경기장에서 거행됐다.

종합순위 (금·은·동 메달수)=①서독(7·4·7) ②스페인(6·5·4) ③이탈리아(4·4·5) ④네덜란드(3·3·6) ⑤터키(2·1·5) ⑥덴마크(1·1·4) ⑦프랑스(1·1·3) ⑧영국(0·2·4) ⑨벨기에(0·1·2) ⑩노르웨이·그리스(0·1·1) ⑫오스트리아(0·0·3) ⑬스위스·스웨덴(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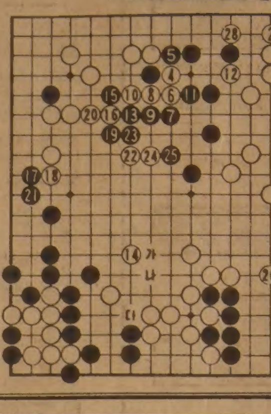
故卜惠淑씨 장례식
어제 梨大병원에서

원로배우 故卜惠淑여사의 장례식이 7일상오10시 유족과 申榮均예총회장, 李尙憲영협이사장대행, 朴一龍연협이사장, 崔戊龍연기위원장등 연예인 2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梨大부속병원에서 거행됐다.

이날 2천여 팬들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길을 지켜 보았다. 유해는 서울시립장재장에서 화장돼 觀音寺에 안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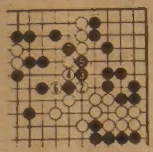
名人戰 第14期 挑戰者決定리그

第1局 第8譜 (101~128) (각5시간·덤5집반)
白 (6段) 徐能旭
黑 (4段) 梁動



白 맹추격 개시

피아의 경계선이 차차 드러나는 현재 형세는 막상막하. 白은 전보까지 유망한 국면이었다가 黑에게 우변을 유린당한 꼴로서 일순에 계가바둑이 되었고 우상귀쪽을 黑3으로 막은데서 黑이 오히려 약간 앞서기 시작한다. 白4는 6단 한손인 찬가를 해보더니 즉시 白4로 끊어 이하10까지 좌상쪽 白집을 토실하게 다져놓았다. 하지만 黑11에는 白12가 불가피하다. 손을빼었다가 참고도의 黑1이하를 당하면 黑7로서 白3점이 커다랗게 잡힌다. 黑4단은 黑13이하를 아낌없이 두어버렸으나 국후에 「黑13으로는 「가」에선 「나」에서 「다」로 착하여 는 수를 노리면 白은 「다」의 곳을 보강해야된다. 따라서 白14를 두기전에 黑「가」白「나」를 교환해야 유리했다」고한다. 白이먼저 14를 두고보니 黑「가」의수단도 없어지고 여기에서 좋은 집이생겨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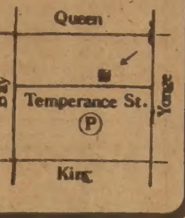


비록 그러나 黑15서부터 17·19의 수순이 더없이 좋았고 白도 22이하28까지 필사적인 추격으로 국세는호각. 黑25까지의 대마는 설마 죽지않겠지만 이대로 버려둘수도없다. 黑4단은 다음수를 10분간이나생각한다음(一力)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아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11 : 00AM~10 : 30PM
금요일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 368—3470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40>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안개속의 집 ⑦

그러나 아깝없이 쏟아부은 재산을 만회하긴 생각처럼쉽지않다는 걸 슬슬 깨달아갈 즈음 그런 된서리를 맞은 셈이었다.

기동은 자신의 운(運)없음이나 한탄할수밖에 없었지만, 유산에의 기대가 서운케 무너진 그밖의 자식들간엔 원성이 자자했다. 뿔뿔이 할말도 많았다.

아버지를 망령기들어도 고약하게 든 늙은이 취급을 해서 천덕꾸러기로 죽어가게했고, 형제들끼리도 터놓고 불평하고 험뜯었다.

우선 맏형 기동을 막대한 재산을 혼자서 들어먹고 가문의 패가망신을 가져온 패륜아취급을 해서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재기불능을 만들었다. 다음은 아직 결혼을 안해서 집 한채도 못얻어가진 막내가 형들의 집 한채를 시기하고 뜯어가지못해 안달을 하는 통에 여지없이 따돌림을 당했다.

남들이 부러워하던 집안꼴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한심하게 돼가는 판국에 기욱은 설상가상으로 그의집조차 은행에 담보로 들어가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됐다.

그의 아버지가 기동이뒤를 댈 돈이 달리자 기욱을 거치지않고 직접 며느리한테 집을 담보로 제공해줄 것을 사정한 모양이었다.

노인이 그럴수 있었던것은 결코 수지가 고분고분해서도 효성스러워서도 아니었다.

기동이 국회의원이 되고, 남씨집이 빽있고 이름있는집안으로 부상한다는데대해 수지가 가장 신바람이 났기때문이었다.

누가 시키기전에 수지는기동의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가족들이 할수있는 선거운동의 실질적인 참모노릇을 스스로 도맡았다.

여북해야 기동이 무난히 당선되자 아버지는 기동의 아내인 맏며느리를 제쳐놓고 둘째 며느리인 수지의 노고를 더욱 가상히 여겼고, 수지가 남씨집 며느리 된지 삼년안의 경사라하여 수지를 우리 복덩이, 우리 복덩이 하기까지 했다.

기욱이 보기에 수지는 그때 가장 살맛나 보였지만, 기욱이 수지를 잘못 선택했을지도 모른단 의심이 들기도 그때부터였다.

그런데 집까지 제멋대로 그꼴을 만들어놓았으니 기욱이 불같이 노여워했던건 말할것도 없었다. 그때 비로소 수지는 자기의 재력을 과시해서 그가 실컷 노발대발할 겨를도 주지않았다.

그녀는 결혼과동시에 수철이한테 자기 몫의 재산을 요구했고 오목이를 모른척한 약점을 잡힌 수철이는 조금도 우물주물하지않고 순순히 여지껏 수지 몫이라고 공언하면서 관리하고있던 재산을 떼주었었다.

수철이 못지않게 뛰어난이재(理財)감각을 지닌 수지라 그것을 기욱에게 있는 척하지않고 은밀히 단독으로관리도 잘하고 이식에도 수완이 만만치 않았다.

그녀는 기욱이 몰래 저지른 짓의 책임을 지고 은행빚을 그녀 능력으로 청산하면서도 그 액수가 자기 재산의 극히 일부분이라는암시만 기욱에게 주었을뿐 결코 전재산이 얼마만큼이라는걸 밝히지 않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기욱의 노여움은 담박 가라앉았고 가정은 다시화평해졌다.

기욱은 남다른 낭비벽이있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만큼 월급을받는 엔지니어였지만 한달벌어 한달 쓰고 남겨 저축하기위해 아둥바둥사는건 질색이었다.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랍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 977-9734

Richard Y. K Wong
Insurance Broker

보 험
⊙자동차 보험
⊙주택 보험
⊙상업(가게·레스토랑등)전문

312 DUNDAS ST. W. TOR.
(B)977—4057 (H)461—7769
Registered Insurance Broker 리차드·왕

SHANGHAI RESTAURANT

드디어 해삼탕 개시!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 : 심미리사
BAND - 기타 : 신상진
올갠 : 허효상
드럼 : 권순완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YONGE FLOWER SHOP
한국인 경영의 최대규모의 꽃집

◎ 각종 PLANTS, 어랜지먼트, CUT FLOWER, SOIL 취급
◎ 결혼·장례·생일·파티등 화환 (일류 FLOWER 전문가)

토론토 전지역 배달

◆토론토 한인 화초가게중 가장 큰 규모의 꽃집을 소유한 김순환씨와 여동생.

☎ : 960—6265 589 YONGE ST.
(ONE BLOCK NORTH OF WELLESLEY ST.)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中國良藥 大量供應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정동석목사 위임예배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귀하와 귀교회위에 항상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간 저희교회는 어려운 환난과 역경속에서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과 사랑으로 꾸준히 성장하게 된것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정동석목사님 위임예배를 드리고저 하오니 부디 오셔서 기쁨의 제단을 함께 쌓을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래—

일 시 : 1982년10월24일(주일)
오후6시—환영잔치
오후7 : 30—노회모임
오후8시—위임예배시작
장 소 : 55 ERB ST. W.
Waterloo, Ont.

KNOX PRESBYTERIAN CHURCH
임시당회장 : REV. A. M. BEATON
워터루—웰링톤 노회장 : REV. IRIS FORD

연락처 : 토론토 743—0816(정동석목사)
키치너 576—4926(김진욱장로)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범한서적
◉한국전집류 ◉고전, 현대소설
◉유치원 백과, 새생활 백과사전
◉사전류, 가정 요리, 꽃꽂이 ◉광복20년
1712 Queen E. 전화 : 690-2216
북미주총판책임자 최 규 흘

사진

새 하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식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중국집) 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 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 - 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마련.
전화 : 532-1054(아리랑식당 옆)
712 Bloor St. W. 김 덕 기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님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불라도)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하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성실한 여자 캐쉬어 구함.
전화 : 923-8737

Sales Help wanted (베다스트×로렌스)
현대식 사무실, Leads supplied, parking
Mr. Roy 전화: 789-1241 Louis Roy Ltd., Realtors

Donut Shop에서 주말에 밤일, 낮일 「Part Time」하실 여자분 구함. ★전화는 오전11시 이후
전화 : 282-3553

웨이터, 웨이트레스
18세이상 주말 학생 파타임 구함 (1명)
(목·금·토 저녁에만) 경험 없어도 됨.
114 Laird Dr. 전화 : 421-6016
일본식당(오후 2시30분 이후 연락바람)

식품점에서 일할 Helper 구함.(남자분)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주7일간)
삼복식품 전화 : 743-8270

5년이상 제과기술직에 종사하시던 분을 찾읍니다.
전화 오전9시-4:30사이
749-1822 Mr. Kim

★가게에서 Helper해주실
신체전장한 남자분 구함.(다운타운)

★Store Manager 구함(토론토 또는 시외지방)
단, 보증금 요함. 624-5817(Mrs.차)

샌드위치숍에서 일하실 카운터 헬퍼구함. ◉주5일. 추레인 시킴. 직접 내방바람.
68 Yonge St. LULU'S CAFE.

웨이트레스 구함(Full Time)
전화 : 532-2727

입주하셔서 집안일 도와주실분
(중국가정임)
전화 : Mrs. Law 493-6190

입주 또는 출·퇴근 하시면서 애기 봐주실분 구함
◉주5일. 스카보로 북쪽.
전화 : 496-1664 Mrs. 리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Grade 7부터 Grade 9까지의 수학·과학을,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엔지니어가 개인지도 또는 그룹을 지도함.
전화 : 293-3149 Mr. Sam Lee

양장, 재단 개인지도(휜치 & 베더스트) 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 재봉은 하지만 재단 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구혼

결혼상담, 전자칩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매매

Coffee Shop
주매상 : $4,000(7:00 a.m.~5:00 p.m.주5일 영업)
Rent : $1575, 리스 : 3년반+5년, 10만불 Down,
good profit, 가격 : $165,000
황용현부동산주식회사
Call : 이헌영 449-8644(B), 686-0207(R)

그로서리 Store 매매. (이층은 살림집)
년매상: $200,000, 가격: $95,000 (일요일 휴점)
모개지: $30,000 at 8¾%. 연락처: 519-327-8368

Bargain Sale !
★Dairy Case(우유제품 진열장) 6ft.
★2 Door 냉장고(Store용) 242-4712 Mr. Kim

버라이어티 가게 급매
주매상 : $4,000. 리스: 1년(650불) + 5년
550 Sheppard Ave. W.

★Coffee & Snack Shop(주6일 Open)
Office Building 과 Shopping Mall내에 위치함.
주매상: $10,000. 리스: 4년+5년 옵션
가격: $400,000
★Dry Cleaning Business
고급주택과 Apt.가 밀집한 위치.
주매상 : $7,000. 리스: 9년 가격: $265,000
A.E.Lepage Mrs. Woo(우) 전화 : 741-9170

각종 알로베라제품 판매. 쥬스·크림·로숀·약용크림외 다수품목 보유. 최저 염가 봉사합니다.
5439 Yonge St. 전화 : 222-4717 Mrs. 김

남자옷 맞춤과 남자옷 파는가게 매매
스카보로 플라자.
1년 Sales $200,000
주인이 정년퇴직 관계로 팔고자 함.
전화 : 752-6466 · 491-2573(저녁)

House for Sale
Thornhill에 있는 (Bayview & Willowbrook area)
-5 Bedroom 4 Bathroom 2 Fireplace Hollywood Kitchen Family Rm. Finished Walk - out Basemt & Much more.
-Close to everything(School, Shopping Centre, etc.)
-Asking $199,500
Call Mr. Ivin Savov 889-3329

1981년 덧쥐 벤 추럭(Ram)
6기통. 25,000Km. 가격: $5,800
전화 : (B)622-2643 (R)626-1843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포튜갈 빵가게및 버라어스티가게. 지하실, 2층 아파트 세놓을수 있음 Asking 13만불(권리금+건물) 2만5천불 다운페이 원함. 1602 Dufferin St. 전화 : 657-1554

Variety Store 급매(이윤좋은 가게)
주매상 $2,500 Rent $450 리스: 4년반
Asking: $12000+스탁 전화 : 654-4709

GROSS 캐쉬레지스타 팔고자 함.
관심 있으신분 내방바람
468 Cosburn Ave.(Greenwood & Cox well)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세탁소 매매(pick-up) (Almar Cleaners)
640 Rogers Rd.(At two Block west of Keele)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오셔서 보시고 문의바랍니다.
전화 : 294-8164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 : 533-2361

여권분실

분실자성명: 전성혜(여) Korea
여권번호: 1152065
연락처: 425-2198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방세 혹은 하숙합니다. 1 Bedroom
Near Dufferin Subway. 여성에 한함.
전화 : 279-2369(R) 533-2361(B) Mrs. 조

집렌트

4 Bed Room House전체를 세놓고자함(Brampton지역)
2 Bath Room, Family Room, Fire Place, 차고등.
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593-89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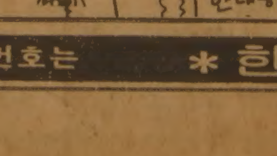
Flat for Rent(Euclid & Harbord)
$375/M. 오전 10시부터 오후6시사이에 연락바람.
전화 : 977-3758

집세놓음 (4 Bed Rms) mimico area.
중앙식 Air Con . 차고 있음. 교통 매우 편리.
Downtown에서 5분 거리 전화 : 368-9018. 366-0960

단층집(Semi Detaches) 4 Bed Room 세놓음.
Home Bar등 지하실 꾸며져 있음. ($650/M)
스카브로지역(Neilson & Sheppard). 전화 : 968-9450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호남향우회	651-8835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우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K. A. L.	862-8250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대환부동산
전화 : 535-1251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세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 권

가구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충소

관 광

코라메 관광(주)(제일여행사 2층)
일년내내 관광을 함께·····
649 A Bloor St. W. 전화 : 535-0853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안)
각종 파티·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광고문의 533-2361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서)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5시 이후)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미술연구소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사무용구및계산기

SBS캐쉬 레지스터 (휜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어떤 광고가
필요하십니까?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